



온누리교회는 하용조 목사가
1985년 10월 6일 창립한 사도
행전적 '바로 그 교회'입니다.

온누리신문

- 성경 중심의 교회
- 복음 중심의 교회
- 선교 중심의 교회
- 긍휼을 베푸는 교회
- 그리스도 문화를 심는 교회

창간 1994년 4월 3일

news.onnuri.org

2018년 12월 23일(주일) 제1226호



사진은 지난해 성탄예배.

“왕이 나셨다, 왕이 나셨다”

오늘은 성탄주일 ... 칸타타, 발표회 등 기념행사 풍성
25일에는 성탄축하 ‘크리스마스 콘서트’ 막 올라

오늘은 성탄주일이다. 온누리교회 국내 10개 캠퍼스에서는 아기 예수님 탄생을 축하하고 기뻐하는 아주 특별한 예배를 드린다.

서빙고 온누리교회 1~4부 예배에서는 주사 랑찬양사역팀, 양재 온누리교회 1~4부 예배에서는 주기쁨찬양사역팀이 칸타타를 선보인다. 수원 1~4부, 남양주 1~2부, 평택 1~2부, 강동 1~3부 예배에서도 칸타타를 한다. 부천은 오후 7시 성탄축하예배에서 차세대가 특수를 선보이고, 인천은 3부 예배에서 성탄절 발표회를 한다. 강동은 오후 5시 차세대 성탄발표회를 한다. 서빙고 열린새신자예배(오후 7시)에서는 예수님의 오심을 그린 연극 ‘빈 방 있습니까?’ 가 막 오른다.

25일에는 온누리교회 국내 10개 캠퍼스 본당에서 ‘온 가족이 함께하는 크리스마스 콘서트’가 열린다. 예수 탄생의 기쁨을 온 가족과 이웃이 함께 나누는 자리다. 서빙고 크리스마스 콘서트는 강석우 집사(배우)가 진행하고, 헬리스트 송영훈, 모던클래식(비브라폰&색소폰), 소프라노 김영미와 제지들, 남성4중창 크룩스, 교역자 특순이 이어진다. 양재 크리스마스 콘서트는 이무송 집사(가수)가 진행하고, 색소폰 연주자 대니절, 가수 노사연, 남성4중창 이니찌야, 교역자 특순을 선보인다.

(크리스마스 콘서트 일정 표 참조)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2018 크리스마스 콘서트 일정

캠퍼스	12월 25일
서빙고	1부 오전 9:00, 2부 오전 11:30 3부 오후 2:00
양재	1부 오전 9:00, 2부 오전 11:30 3부 오후 2:00 *양재 환승주차장 일동제약 주차장 이용(서릉운행)
부천	1부 오전 9:00, 2부 오전 11:30
수원	1부 오전 9:00, 2부 오전 11:30
대전	1부 오전 9:00, 2부 오전 11:30
남양주	오전 11:30
인천	오전 10:30
평택	오전 11:30
강동	오전 11:00
양지	오전 10:00

2018-2019 송구영신 및 신년예배

2018-2019 송구영신 및 신년예배 일정이 나왔다. 송구영신예배는 12월 31일 온누리교회 국내 10개 캠퍼스 본당에서 드린다. 서빙고와 양재 오후 7시, 9시, 11시, 부천, 수원, 대전, 인천 오후 9시와 11시, 남양주, 평택, 강동, 양지 오후 11시에 예배를 드린다. 말씀은 이재훈 담임목사가 전한다.

신년예배는 2019년 1월 1일 오전에 드린다. 서빙고와 양재 오전 9시 30분과 11시 30분, 부천 오전 9시, 수원, 대전 오전 9시 30분, 인천

캠퍼스	12월 31일 송구영신 예배	1월 1일 신년예배
서빙고	1부 오후 7:00, 2부 오후 9:00, 3부 오후 11:00	1부 오전 9:30, 2부 오전 11:30
양재	1부 오후 7:00, 2부 오후 9:00, 3부 오후 11:00 *양재 환승주차장만 이용(서릉운행)	1부 오전 9:30, 2부 오전 11:30 *양재 환승주차장 일동제약 주차장 이용(서릉운행)
부천	1부 오후 9:00, 2부 오후 11:00	오전 9:00
수원	1부 오후 9:00, 2부 오후 11:00	오전 9:30
대전	1부 오후 9:00, 2부 오후 11:00	오전 9:30
남양주	오후 11:00	없음
인천	1부 오후 9:00, 2부 오후 11:00	오전 10:30
평택	오후 11:00	없음
강동	오후 11:00	없음
양지	오후 11:00	없음

오전 10시 30분이다. 남양주, 평택, 강동, 양지는 신년예배를 따로 드리지 않는다(표 참조).

정관개정안 공동의회 통과

온누리교회의 정관개정안이 지난 12월 16일 공동의회를 통과하여 정관 개정작업이 마무리되었다.

온누리교회는 교회의 조직과 활동에 관한 기본규칙을 정한 교회 정관을 창립초기인 1987년에 제정하였으나 오랜 시일이 경과되면서 크게 성장한 교회의 현황과 맞지 않는 부분이 많아 그동안 정관 개정작업이 계속 추진되어 왔다. 결국 금년 봄 당회 제도개선 위원회와 운영위원회에서 개정안 초안을 성안하여 4월 28일 장로들을 대상으로 공청회를 개최, 의견을 수렴하였고, 그에 따라 일부 수정보완 작업을 거친 후 지난 11월 3일 당회에서 개정안이 의결되었다.

정관개정안 전문은 12월 2일자 온누리신문에 게재하여 성도들에게 공개하였고, 12월 9일 공동의회에 정관개정안이 상정되어 이에 대한 찬반투표를 12월 16일 예배시간에 하기로 결정하였다. 그에 따라 12월 16일 주일 예배시간에 전 캠퍼스에서 투표를 실시한 결과 총 투표 15683명 중 찬성 15,149표(97%), 반대 344표(2%), 무효 190표(1%)로 가결되어 개정 정관이 효력을 발생하였다.

개정 정관은 온누리교회의 목적과 비전이 사도행전적 교회를 표방하는 선교적 교회로 쓰임 받는 것임을 명시하였고, 조직, 운영은 교회의 실제 현황을 반영하도록 하면서도 국내 캠퍼스교회와 해외 비전교회 조직을 아우르는 실제적이고 미래적인 정관이 되었다(개정 정관 전문 12-13면 게재).

온누리 절약 캠페인 6

교회 비품을 아끼자

교회 비품을 아껴 쓰는 것도 예배다. 캐비닛, 보면대, 마이크, 종이컵, 휴지, 복사기, 종이 등 교회 비품을 내 몸같이 아껴 써야 한다. 비품을 아끼는 것이 곧 교회를 사랑하는 예배이기 때문이다.

교회 비품을 남용하거나 훼손하면 성도들의 헌금으로 고스란히 채워야 한다. 각 사역팀과 공동체가 교회 비품을 아껴 쓰고, 깔끔하게 정리정돈하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효과를 볼 수 있다.



People

만나고 싶었습니다

여기, 교회 디자인 외길 인생을 걸어온 이가 있다. 온누리교회 디자인실 수장(首長) 한백진 장로(여의도공동체)다. 한 장로는 온누리교회 디자인의 산 증인이다.

한 장로는 참 멋있는 사람이다. 나이가 일흔을 앞두고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젊고 신선하고 밝다. 그가 평소 쓰는 말투에는 낙관적인 성격이 묻어있다. 교회 디자인을 시작하게 된 계기를 묻는 질문에 한 장로는 “어쩌다 즐거워서 한 것”이라고 쿨하게 말했다. 그 어쩌다 즐거워서 시작한 디자인이 온누리교회의 시각적 정체성을 만들어냈다.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교회 디자인은 내 인생”

온누리교회 디자인의 산증인 ‘한백진 장로’



온누리신문



온누리교회의 수많은 디자인을 담당해온 한백진 장로(우)와 그의 디자인들(좌).

한 입 베어 문 사과, 빨간색 바탕에 커다란 C 2개가 돋보이는 흘림체 로고, 녹색 바탕 속 왕관을 쓴 구불구불한 긴 머리카락의 여자와 그 옆으로 장식처럼 붙은 인어꼬리 모양...

이 설명을 들으면서 과연 무엇을 상상했을지 궁금하다. 이 설명은 세계적인 기업들을 상징하는 CI이다. CI(Corporate Identity, 기업 정체성)는 기업의 성격과 역할, 비전 등을 시각적 디자인으로 통일화한 것을 의미한다. 쉽게 말해 기업의 로고, 심벌마크, 엠블럼 등이 CI에 해당한다.

한백진 장로는 CI 디자인만 평생 해온 디자이너이다. 단국대학교 커뮤니케이션디자인과 명예교수, BDKA(한국브랜드디자인학회) 회장, 캘리그라피디자인센터장 등 디자인계에서 굵직한 직함을 달고 있다. 평생 학생들에게 디자인을 가르쳤으며, 학회장으로서는 각종 디자인 공모전 심사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또한 캘리그라피 강의를 통해 디지털 세상의 삭막함에 찌든 이들에게 손글씨의 아름다움과 아날로그적 여유를 소개하고 있다.

한 장로는 온누리교회 디자인실을 20년 넘게 이끌고 있다. 오랜 시간 교회 디자인을 담당해온 만큼 그의 손끝에서 탄생한 온누리교회 디자인이 무척이나 많다. 온누리신문 로고 서체도 한 장로가 디자인했다. 2000선교, 꿈이 자라는 땅, 아름다운동행(가정사역본부), 하나님의훈련학교, 아버지학교, 하용조 목사 기념

관과 기념채플 서체 등 교회 로고 대부분을 그가 디자인했다고 생각하면 된다.

“온누리교회사역팀과 부서 로고는 거의 다 한 것 같아요. 교회 로고뿐만 아니라 두란노서원 출판물도 많이 했고요. 하용조 목사님 단행본도 하고, 잡지 〈빛과 소금〉 디자인도 참 많이 했어요.”

어쩌다 즐거워서 시작한 ‘교회 디자인’

한백진 장로는 어쩌다 교회 디자인의 길로 들어서게 됐을까?

“어쩌다보니 즐거워서 교회 디자인을 시작했어요. 어떤 사역팀에서 포스터 하나만 디자인해달라고 해서 해줬거든요. 그걸 하용조 목사님께서 보셨나 봐요. ‘이 디자인 누가 했냐?’고 물으시면서 저를 찾더라고요. 하용조 목사님께서 저에게 교회 디자인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셔서 교회 디자인을 시작하게 됐어요.”

처음에는 한 장로 혼자서 교회 행사, 사역팀, 부서에서 필요로 하는 모든 홍보물과 이미지를 디자인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교회에서 디자인 할 일이 많아졌다. 교회가 커지고, 비전이 확장되면서 따르는 자연스런 현상이었다. 덩달아 한 장로가 디자인해야 할 일이 엄청나게 늘었다. 일주일에 학교에 3일 나가고 나머지 4일은 교회에서 일을 해야 할 정도였다.

“일이 많아지니까 저 혼자 할 수 없겠더라고요. 그때가 IMF 시절이라 학생들이 취업이 잘 안 될 때였어요. 성적은 좋은데 취업이 안 된 제자 한 명을 데려와서 일을 맡겼어요. 그러다 또 한 명 데려오고, 또 한 명 데려오다가 온누리교회 디자인실을 꾸리게 됐습니다.”

교회에서 네댓 명이 하는 디자인이라고 우습게보면 결코 안 된다. 한백진 장로와 온누리교회 디자인실에서 만들어낸 작품들은 다른 기관들을 선도(先導)하는 디자인이었다.

“다른 교회에서 온누리교회 디자인을 보고 배우고 싶다면 견학을 참 많이 왔어요. 우리 교회 디자인을 따라한 교회들도 참 많았고요. 대기업에서도 견학을 왔었어요. 사실 기업에는 수백 명에서 수천 명에 이르는 디자이너들이 있는데 고작 네댓 명 있는 우리한테 와서 견학을 하더라고요.”

예술가들의 전유물이자 고질병이라고 할 수 있는 창작의 고통이 어마어마했을 것 같은데, 게다가 선도하는 디자인을 계속 만들어내는 일이 오죽했을까. 한백진 장로에게 지치지 않는 비결이 무엇인지 물었다.

“새벽기도 나가면 디자인이 떠오르더라고요. 새벽기도 가서 무릎 꿇고 엎드려 있으면 갑자기 영감이 떠오를 때가 너무 많았어요. 바로 전날 제안 받은 디자인이 그 다음날 새벽기도에서 떠오르기도 했어요. 참 신기한 일이죠? 저의 디자인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손편지와 디자인 그리고 기도

한백진 장로의 신앙 역사가 참 재밌다. 그는 아내를 따라 교회에 다니게 된 늦깎이 성도이다. 결혼을 계기로 신앙생활을 시작했다.

“저는 아내를 정말 잘 만났어요. 총각시절에는 교회를 안 다녔거든요. 결혼 허락을 받으려고 처갓집에 갔는데 장인이어른께서 ‘교회 다니냐?’고 물으시더라고요. 장모님은 아무 것도 가진 것 없는 시켜면 사내가 와서 막내딸과 결혼하겠다고 하니까 제가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 같았어요.”

결혼은 해야겠는데 정말 큰일이었다.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던 비결은 그가 쓴 손편지였다.

“제가 글씨를 잘 썼어요. 아내한테 쓴 연애편지를 처형들이 돌려보고 그랬나봐요. 편지 내용은 뻔한데 남자치곤 수려한 글씨체가 처형들 마음에 들었나 봐요. 처형들이 나를 많이 도와줬어요. 장모님한테 ‘그만하면 됐지, 괜찮은 사람 같다’라고 힘을 많이 실어줬어요.”

온누리교회에 오게 된 계기는 천안에서 만난 목사님의 추천 때문이었다.

“천안에 있다가 서울로 이사 오게 되었는데 아내가 서울 가면 어느 교회가 좋을지 목사님께 물어봤던 모양이에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온누리교회를 말씀하셨대요. 아내의 기도도 영향이 있었어요. 아내가 ‘남편이 디자인을 하는데 그 달란트를 쓸 수 있는 교회에 다니고 싶다’고 기도했다고 하더라고요.”

아내의 기도대로 한 장로는 온누리교회에 오게 되었고, 자신의 달란트를 십분 살려 교회 디자인을 하게 됐다.

“온누리교회가 제 운명이었던 것 같아요. 교회 디자인도 마찬가지고요.”

마지막으로 한백진 장로가 온누리교회 성도님들에게 감사인사를 전했다.

“그동안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세상 앞에서는 당당하고 바른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디자인을 했습니다. 교회 디자인을 사랑해주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저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세상에서는 당당하고 바른 디자이너로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백진 장로 디자인 홈페이지
블로그명: 한백진 교수의 글꽃정원
네이버 블로그 주소: designhow.com



주일강단



이재훈 목사

생명의 구속자 그리스도

레위기 17:10~14

“예수님이 오신 것은 생명의 구속자가 되기 위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사모하고, 체험하고,
승리하며,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언을 따라 오신 예수님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여자의 후손’으로 예언되어 오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출애굽기에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예언된 예수님을 살펴 보았습니다.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는 ‘생명의 구속자’로 오시는 예수님에 대하여 살펴 보게 됩니다.

구약에 나타난 모든 예수님에 대한 예언은 책마다, 말씀마다, 예언마다 구체적으로 확장되어서 나타납니다. 특히 레위기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예언은 유월절 어린 양 되신 그리스도를 제사, 절기, 제도들을 통해서 입체적으로 예언하고 있습니다. 레위기에 나타난 제사제도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속죄제물이 인간의 죄를 대신 짚어지는 제물이 됨으로 하나님의 용서가 베풀어진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대속하는 ‘피’

“이는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이다. 내가 너희를 위해 제단에서 속죄를 하는 용도로 주었던 것이 바로 피다. 이는 피가 생명을 대속하는 것이기 때문이다”(레 17:11).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고, 제사는 피를 흘리는 제단에서 속죄를 이루는 용도로 제정되었습니다. 피가 생명을 대속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피가 얼마나 소중한지, 피에 생명이 있고, 피가 얼마나 건강한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성경은 피를 중요하게 말합니다. 레위기 17장 10절을 보면 “피를 먹지 말라”고 강력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실제 한국 교회에서도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적용하는 교회가 여전히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율법적,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피가 생명을 대속한다는 말씀의 맥락에서 구약의 피에 관한 모든 율법을 해석해야 합니다.

“피를 먹지 말라”는 말씀은 문자적으로 적용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레위기에 나오는 다섯 가지 제사제도는 어떻게 피가 생명을 대속하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사건으로 모든 제도가 폐지되었고 완결되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적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레위기에 나타난 다섯 가지 제사제도의 핵심적인 의미를 간략하게 살펴보면 생명의 구속자이신 그리스도가 어떻게 예표 되있는

지를 보겠습니다.

다섯 가지 제사와 그 의미

첫 번째 제사는 번제(burnt offering)입니다. 이것은 온전한 헌신을 의미하는 제사입니다. 모든 것을 불태웁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올려드린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불로 모든 것을 태우는 제사입니다. 제사장에게도, 제물을 드리는 사람에게도 돌아가는 것이 없습니다. 피를 빼고 모든 것을 불태우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제사는 소제(cereal offering)입니다. 번제처럼 불태우지만 일부는 제사장의 몫이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드려집니다. 동물의 제사가 아니라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곡식의 의미는 예수님께서 온전한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인성을 가지신 분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대속하시는 그리스도가 되기 위해서는 흠 없는 인성을 가진 분이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사람이 되셔야만 했습니까? 진정한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도우시는 것과 사람으로서 섬기고 대속을 이루시는 제사를 완성하셔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소제의 대표적 의미를 ‘섬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제사는 화목제(fellowship offering)입니다. 화목제는 예물을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과 제사장과 더불어 음식을 나눠 먹는 제사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부분은 피와 기름, 제사장은 혼든 기름과 오른쪽 뒷다리, 나머지는 예물을 드리는 자가 함께 식사를 합니다. 먹는 제사입니다. 먹는 제사이기에 ‘기쁨의 제사(joy offering)’라고 하기도 합니다. 화목제의 대표적인 의미는 ‘교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식탁에서 인간과 하나님이 만나서 음식을 먹음으로 교제하는 제사입니다.

네 번째 제사는 속죄제(the sin offering)입니다. 속죄제는 인간 안에 있는 원죄를 위한 제사입니다. 그래서 속죄제를 설명할 때 반복되는 것이 ‘무의식중이라도’와 ‘하나라도 어겼을 때’입니다. 이 기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 삶 속에서 단 하나라도 죄를 범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원죄 가운데 태어났다는 것과 원죄를 용서받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죄제는 다섯 가지 제사 중에서 피를 가지고 하는 의식

을 강조합니다. 또한 기름과 피를 제외한 나머지 제물들을 불태울 때 진 밖에서 태우는 것이 특징입니다. 속죄제의 대표적 의미는 ‘원죄에 대한 용서’입니다.

다섯 번째 제사는 속건제(the guilt offering)입니다. 속죄제가 행위 이전에 근본적인 원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속건제는 행위로 인해 서로 주고받은 상처, 피해, 손해 등 관계와 갈등의 문제에 초점을 둡니다. 만일 이웃의 것을 취했다면 그것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해야 하고, 만족을 시켜줘야 합니다. 모든 관계와 갈등과 잘못을 값으로 치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속건제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이루어졌다

예수님은 번제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셨기 때문에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자신에게 속한 것은 그 어느 것도 주장하지 않고,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온전히 자신을 제물로 드리는 번제물로 세상에 오셨기에 예수님은 세상에 헌신하신 것입니다. 대속제물이 되기 위하여 헌신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소제물로 오셨습니다. 헌신한 그 분이 사람이 되심으로 제자들을 섬기고, 이 땅의 사람들을 섬기셨습니다. 십자가에 낮아지기까지 섬김으로 자신을 희생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소제물로 드리며 끝까지 섬김의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화목제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찬을 제정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약에 예언된 화목제물이 십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하나님과 사람이 화목하게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을 먹고 마심으로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셔서 구약의 제사에서 하나님과 제사장, 사람들이 함께 먹음으로 교제했던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속죄제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속죄제물이 되셨기에 진 밖에서 제물이 불태워진 것처럼 우리의 원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 땅에 오실 때도 예수님은 사람들이 거주하지 않는 영문 밖에서 태어나셨고, 죽으실 때도 영문 밖에서 죽으셨습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은 우리의 속건제물이 되심으로 원죄를 용서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와 허물로 인해 주고받은 관계 속의 갈등, 상처, 문제를 회복시키고, 보상하시고, 만족시키셨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헌신하셨고, 이 땅에 오셔서 섬기셨고, 교제를 일으키셨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고, 나아가 모든 갈등까지 회복시키시는 일을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이루셨습니다. 레위기에 나타나는 다섯 가지 제사제도가 가리키고 있는 의미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린 피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존 스톱트 목사님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책에서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죄의 본질은 자기 자신으로 하나님을 대신하는 인간에게 있으며, 구원의 본질은 인간을 위해 인간을 대신하신 하나님께 있다. 인간은 하나님에 대항하여 자기를 주장하면서 오직 하나님께만 해당되는 자리에 자기를 올려놓는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을 위하여 자신을 희생시키시고, 오직 인간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자신을 두신다. 인간은 오직 하나님께만 속한 특권을 주장하나 하나님은 오직 인간에게만 속한 형벌을 받으시는 것이다.”

“피가 생명을 대속한다”는 말씀은 인간의 모든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이 흘려야 할 피를 흘리시고, 인간이 받아야 할 형벌을 받으시고, 인간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자신을 두심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장차 오실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질 사건입니다.

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 어떻게 만납니까? 다섯 가지 제물로서 예수님을 어떻게 경험하게 될까요? 가장 먼저 속건제물 되신 예수님을 만납시다. 왜 우리가 예수님께 나왔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죄악 된 행위, 문제, 갈등, 죄가 만들어내는 빚 된 의식, 죄책감, 인생의 문제들을 통해서 속건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부터 “나는 죄악 중에 잉태되었어”라며 자신이 원죄를 가진 존재라고 인식하는 것만이 정답은 아닙니다.

(11면에 계속)

기획_ 온누리가 맞이하는 새해

365일 ‘말씀읽기’와 ‘중보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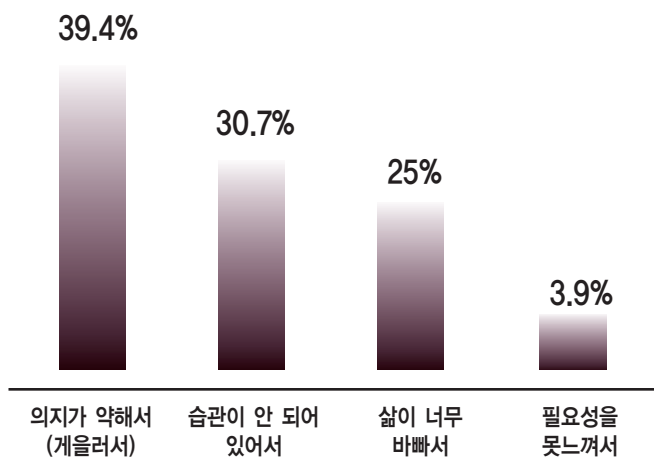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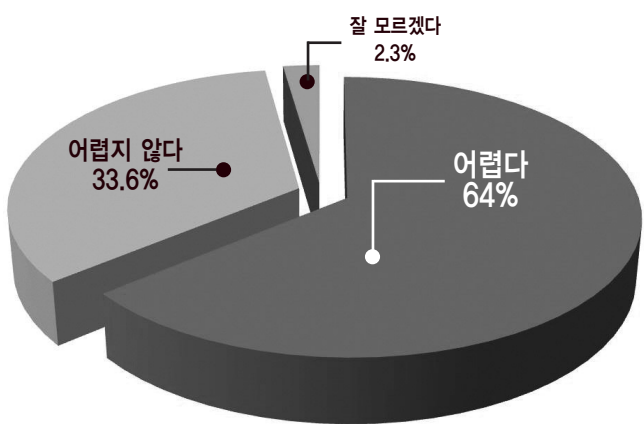
날마다 말씀 먹고 마시는 성도들이 있고,
선교지 위한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는다!

새해에는 365일 말씀을 먹고 마시고, 선교지를 위한 중보기도를 실천하면 어떨까? 이보다 좋은 새해 계획이 없고, 이보다 좋은 습관을 찾기 힘들 것이다. 온누리가 맞이하는 새해는 365일 말씀을 읽고, 날마다 선교지를 위한 중보기도가 이어지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 말씀으로 성령님과 가까워지고, 중보기도를 통해 선교지에 가장 강력한 힘을 보탬 수 있을 것이다. 이미 365일 말씀을 읽는 성도들이 있고, 선교지를 위한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는 곳이 있다. 새해에는 온누리 모든 성도들이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목도했으면 좋겠다.

/ 김영선 기자, 권찬송 기자

성경읽기를 위한 시간 확보가 어려운가? 그렇다면 이유는?

출처: 지앤엠(Grace & Mercy) 글로벌문화재단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시 119:105).

크리스천이라면 누구나 성경을 읽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다. 그러나 매일 성경을 읽는 것이 쉽지 않은 것 같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지앤엠(Grace & Mercy) 글로벌문화재단(이하 지앤엠)이 지난해 만 19세 이상 개신교인 700명을 대상으로 ‘한국 개신교인의 성경 읽기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64%가 성경을 읽기 위한 시간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느낀다고 답했다. 그 이유는 ‘의지가 약해서(39.4%)’, ‘습관이 안 되어 있어서(30.7%)’였다.

약한 의지를 극복하고, 꾸준히 성경을 읽기 위해서는 올바른 습관을 기르는 게 중요하다. 그렇다면 성경을 읽는 습관을 기를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지난해 영국 크리스천투데이가 성경 읽기 습관을 기르는 다섯 가지 방법을 소개했다.

성경 읽는 습관 기르는 다섯 가지 방법

첫째, 무조건 많이 읽지 않는다. 아주 적은 양이라도 일단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 게 중요하다. 하루에 많은 양을 읽다 보면 지치기 마련이다. 많은 양을 읽는 것보다 꾸준히 읽는 것에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 하루에 성경 한두 구절이나 한 장을 읽는 것부터 시작하는 게 좋

다.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삶에 적용하느냐가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둘째, 가장 적합한 시간을 찾는다. 일반적으로 아침에 성경을 읽는 것이 좋다. 하루를 하나님께 주신 말씀으로 시작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대인들이 오전에 시간을 내는 것이 쉽지 않다. 그렇다면 꼭 오전이 아니더라도 점심시간이나 저녁에 성경 읽는 시간을 만들면 된다.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시간대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

셋째, 장소를 정해서 읽는다. 성경을 읽는 시간만큼 성경을 읽는 장소를 정하는 것도 중요하다. 카페, 집, 사무실, 방 등 어디든 상관없다.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공간을 정해서 성경을 읽으면 된다.

넷째, 성경을 읽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깊이 묵상해야 한다. 묵상은 성경말씀을 어떻게 삶에 적용해야 할지를 깊이 생각해 보는 것이다. 그래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성경을 단순히 읽기 위해서 읽는다면 성경 읽는 시간이 지루하고 따분해진다. 그러나 말씀을 삶에 적용하다 보면 성경 읽는 재미를 느끼게 된다. 이것이 성경읽기를 꾸준히 할 수 있는 원동력이다.

다섯째, 매일 꾸준히 성경을 읽으려고 노력해야 한다. 말씀을 읽는 것은 고된 훈련이 될 수 있다. 운동과 건강한 식습관을 기르는 것과 동일하다.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는 성경을 매일 읽어야 한다. 원할 때만 읽어서는 안

된다.

365일 말씀 먹고 마시는 양지 온누리교회

양지 온누리교회에서는 성도들의 성경 읽기를 독려하기 위해서 지난해부터 ‘성경 읽기 캠페인’을 진행해오고 있다. 교회 광고와 주보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성경 읽기의 중요성을 알리고 있다. 많은 성도들이 이 캠페인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결과, 지금까지 370독(누적)을 했고, 지난 2달 동안 신약을 일독한 성도가 무려 48명이나 된다. 성경 읽기 캠페인에 참여한 성도들을 만나서 성경 읽기의 중요성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

박진수 집사(양지 온누리교회)가 그 첫 번째 주인공이다. 박 집사는 성경을 꾸준히 읽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말씀을 읽다가 어느 순간 읽지 않게 되면 다시 말씀을 읽는 게 힘들더라고요. 흐름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성경을 꾸준히 읽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늘 생각하고 고민했습니다.”

박 집사는 성경을 꾸준히 읽을 수 있는 방법으로 ‘성경을 늘 휴대하기’를 선택했다.

“요즘 스마트폰에 성경 읽기 애플리케이션이 있으니 성경책을 휴대하지 않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늘 성경책을 가지고 다닙니다. 왜냐하면 말씀에 더욱 집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갈등이 발생했을 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을 제시하기도 한다. 박 집사는 부부싸움이나 가까운 지인과 다툼이 있을 때 성경말씀을 제시하면 문제가 쉽게 해결되었다고 간증했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자기 입장과 의견 차이로 해결점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하지만 성경은 진리고, 기준이기 때문에 성경을 제시하면 문제가 매끄럽게 해결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김정원 성도(양지 온누리교회)는 성경 읽기 캠페인에 참여하기 전부터 ‘90일 성경통독’ 프로그램을 통해서 꾸준히 말씀을 읽어 왔다. 말씀을 읽으면서 삶의 패턴이 변화되었다.

“출근하기 전에 말씀을 읽으려고 하다 보니 아침에 조금 더 일찍 일어나게 되더라고요.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니 더 기쁜 마음이 샘솟았어요.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면 몸도 마음도 건강해지는 것이 느껴집니다.”

김정원 성도는 너무 바쁜 사람들에게 시간을 내서 성경을 읽을 수 있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소개했다.

“사람들을 기다리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자투리 시간에 성경을 조금씩 읽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가용으로 이동하는 동안에는 드라마 바이블이나 오디오 바이블을 활용해서 성경을 듣는 것도 또 다른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혼자서 성경 읽는 게 힘들면 여러 사람과 단체 채팅방을 만들어 그날 읽은 말씀을 나누는 것도 꾸준히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안효남 집사(양지 온누리교회)는 성경을 읽으면서 남편과의 관계가 훨씬 좋아졌다고 고백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남편을 더욱 이해하고 사랑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하면 남편을 잘 섬길 수 있을지 고민하게 됐고요. 너무 신기한 것은 성경을 읽고 나서부터 그런 변화가 생겼다는 겁니다.”

황용오 장로와 홍무자 권사(양지 온누리교회) 부부는 20일마다 성경을 일독하고 있다. 그들이 말하는 성경 읽기 노하우는 항상 성경책을 가까이 두는 것이다. 성경책을 가까이 두다 보면 ‘한 번 읽을 거 두 번을 읽게 된다’고 강조했다. 성경에서 삶의 적용점을 찾는 것도

성경을 재미있게 읽는 방법이라고 소개했다.

“같은 말씀이라도 매번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것이 다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집중하다 보면 성경책 읽은 것이 하나도 지루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읽으면 읽을수록 너무 재밌습니다.”

누구나 처음에는 성경을 매일 읽는 것이 버겁고 힘들다. 하지만 일단 성경 읽기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 말씀을 통해서 삶이 변화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면 365일 말씀 읽는 습관은 얼마든지 생길 수 있다.

세상은 넓고 기도할 것은 너무나도 많다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의 자서전 제목이 기도 하다. 이것을 크리스천들에게도 귀감이 되는 격언으로 바꾸면 다음과 같다.

“선교지는 넓고 기도할 것은 너무나도 많다.”

안타깝게도 선교지를 위한 중보기도 모임 리더들에 의하면 “해를 거듭할수록 중보기도 모임에 참석하는 인원들이 줄어들고 있다”고 한다. 서빙고 온누리교회와 양재 온누리교회에 2000선교본부가 공인한 중보기도 모임이 20여 개 있는데 정기적인 참석자가 20명이 넘는 모임이 손에 꼽을 만큼 적다고 한다.

앞서 언급한대로 선교지는 넓고 기도할 것은 너무나도 많다. 중보기도가 필요한 곳이 무궁무진하다. 선교, 미전도종족, 다음세대, 나라와 민족, 가정, 선교사 자녀, 통일, 이주민, 난민, 군선교 등 중보기도가 꼭 필요한 곳을 세려야 셀 수 없다. 어디 이뿐인가. 인도, 아제르바이잔, 네팔, 북한, 터키, 이스라엘 등 특정 지역을 향한 중보기도까지 합치면 매일 기도해도 모자라다. 어떻게 하면 중보기도가 필요한 곳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할 수 있을까?

〈ON편지〉와 〈Tim Prayer〉 등 기록책자와 소식지를 활용하라!

중보기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다. 중보기도는 성도들이 선교사와 선교지 영혼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최고의 도움이자 후원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막상 선교지를 위해 기도하고 싶은데 선교지와 선교사들의 기도제목이 무엇인지 몰라서 고민할 수도 있다. 선교지의 보안성 때문에 공동체선교사역자를 통해 전달되는 긴급기도제목 외에는 선교지와 선교사의 소식을 듣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그럴 때는 2000선교본부에서 발행하는 〈ON편지〉와 두란노해외선교회에서 발행하는 〈Tim Prayer〉를 활용하면 생생한 선교지 소식과 기도제목을 확인할 수 있다. 〈ON편지〉는 2000선교본부 재능기부자들이 손수 제작하고 있는데 3개월에 한 번씩 선교지 소식과 기도제목을 지역별로 묶어서 발행된다. 〈ON편지〉는 국내, 남아시아, 동아시아, 아프리카, 중동, 유라시아, 미주, 오세아니아를 지역별로 나눠서 선교지 소식과 기도제목을 담아 공유하고 있다. 꾸준한 중보기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표시할 수 있는 란도 있다. 제작팀에 문의하면 매번 발행되는 〈ON편지〉를 받아 볼



평일 중보기도 모임(월요 기도팀) 참석자들이 선교지 소식을 나누고 있다.

평일 중보기도 모임	기도 모임	장소	시간
	월요 기도팀	서빙고 신관 301호	매주 월 오전 10시
	화요 기도팀	서빙고 아론기도실	매주 화 오전 10시
	수요 기도팀	서빙고 신관 403호	매주 수 오전 10시
	목요 기도팀	서빙고 아론기도실	매주 목 오전 10시
지역별 중보기도 모임	금요 기도팀	서빙고 홀기도실	매주 금 오전 10시
	북한 중보기도	서빙고 선교관 402호	매주 월 오후 7시
	네팔 사랑	서빙고 ACTS29홀	매주 토 오전 7시
	아제르바이잔 중보기도	서빙고 꿈터	매주 토 오전 6시
	소아시아(터키)	서빙고 ACTS29홀	매주 월 오후 7시
	터키 중보기도	서빙고 꿈이룸홀	2개월 1회, 두번째 목요일 7시
	마그레브 선교기도	양재 꿈터	매월 둘째주 월 오후 7시
	이스라엘 중보기도	서빙고 ACTS29홀	매주 금 오후 6시 30분
	인도 중보기도	양재 충성홀	매월 두번째 월 오후 7시
	티벳 중보기도	매주 변동	매월 셋째주 목 오후 1시
	몽골 중보기도	서빙고 꿈이룸홀	매주 월 오후 7시 30분
	아프가니스탄 중보기도	서빙고 꿈이룸홀	매주 목 오전 10시 30분
	남아시아 중보기도	서빙고 B102	매월 셋째 월 오후 7시
	람퐁선교 기도	서빙고 꿈이룸홀	매월 셋째 월 오후 7시
	AG 중보기도	서빙고 꿈이룸홀	매월 둘째 화, 셋째 월 오전 10시
	파키스탄 중보기도	서빙고 CGN 홍보관	매월 둘째, 넷째 토 오전 7시 30분

수 있다. 〈ON편지〉 제작팀은 매일 저녁 8시 개인이 기도하기를 권장하고, 화요일과 수요일 오후 2시, 목요일 오전 10시에 중보기도 모임을 진행하고 있다.

〈Tim Prayer〉에는 온누리교회 선교기관 및 협력기관의 기도제목, 각 지역별 선교사들의 기도제목, 국내 선교 사역자들의 기도제목 등이 실려 있다.

Acts29비전빌리지에서 오전 11시 30분에 드리는 시안열방예배에서도 열방을 위한 기도를 할 수 있다. 시안열방예배에서는 선교사들이 예배를 인도하면서 각 지역별 이슈와 기도제목을 나눈다. 선교지의 생생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서 좋다. 이외에도 KIBI 기도문, NGO 더멋진세상 소식지 등 선교지를 위한 중보기도를 하는데 도움이 되는 출판물들이 많다. 선교기관을 후원하고 있는 성도들은 선교기관을 위한 중보기도 모임에 참여해도 좋다.

정말 시간이 없고 바쁘다면 출퇴근길, 잠들기 전에 스마트폰을 활용해서 중보기도를 할 수도 있다. 각 일간지와 주간지에서 발행하고 있는 온라인 신문의 ‘세계소식’ 쪽지는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선교지를 위한 중보기도제목이라고 할 수 있다.

혼자서 하는 중보기도도 좋지만 여럿이 중보기도하면 더 좋다

혼자서 하는 중보기도도 좋지만 여럿이 중보기도하면 더 좋다. 온누리교회에는 2000선교본부가 운영하고 있는 평일 중보기도 모임이 있다. 평일 중보기도 모임은 월, 화, 수, 목, 금요일 오전 10시에 시작한다. 1998년 교회를 위한 주중 중보기도 모임으로 시작한 것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평일 중보기도 모임은 요일별 특징이 있다. 월요일에는 화, 수, 목, 금요일 중보기도 모임의 리더십들이 기도하고 훈련받는 날이다. 오전 10시 시작한 중보기도 모임은 오후 3시가 지나서야 끝날 정도로 중보기도 열기가 뜨겁다. 중보기도 모임 참석자들은 말씀묵상, 나눔, 신앙서적 읽고 나누기, 선교지를 위한 중보기도 등을 하고 있다.

김현미 목사(2000선교본부)는 다양함과 나눔이 선교지를 위한 중보기도 모임의 최고의 장점이라고 했다.

“혼자서 중보기도 하는 것도 좋지만 여럿이 함께 하면 더 좋습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을 나누면 단편적인 조각들이 모여면서 감동이 더욱 명확해지고 깊어지거든요. 다른 성도들의 기도와 나눔을 들으면서 몰랐던 것을 알

수도 있고요.”

무엇보다 좋은 것은 열방을 위해 뜨겁게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장지선 권사(서초C공동체)는 선교지를 위해 뜨겁게 기도한 다음 선교지 소식을 들을 때만큼 뿌듯할 때가 없다고 했다.

“함께 모여 성령님이 주시는 감동과 기도를 선포하면 마음이 뜨거워지죠. 모든 것을 잊고 오직 선교지를 위해 기도할 수 있어요. 선교지를 위한 기도 이후에 들려오는 선교사님들의 좋은 소식이나 변화된 선교지 영혼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더없이 감사합니다. 그래서 매주 평일 중보기도 모임에 나오고 있습니다.”

화요일은 젊은 중보기도자들이 많다. 그래서 화요일에는 차세대대를 위한 기도를 뜨겁게 한다. 수요일에는 남편과 자녀를 위한 중보기도와 선교를 위한 중보기도를 함께 하고 있다. 목요일에는 선교사 자녀를 위한 기도, 금요일에는 기도에 대한 훈련을 진행하며 중보기도를 함께하고 있다. 평일 중보기도 모임에는 누구나 원하는 시간에 동참할 수 있다.

선교지를 위한 중보기도 모임에서 기도하다 보면 유독 마음이 쓰이고, 정이 가는 곳이 있다. 그때는 특정 지역을 위한 중보기도 모임에 동참하면 된다. 온누리교회에는 15개 선교지를 위한 지역별 중보기도 모임이 있다. 북한, 네팔, 아제르바이잔, 인도 등 익숙하거나 생소한 선교지를 위해 뜨겁게 기도할 수 있다.

아프가니스탄 중보기도 모임에는 매주 5~7명이 성도들이 모인다. 한번 모이면 3시간 정도 뜨겁게 기도한다. 아프가니스탄에서 선교 활동을 했던 선교사가 현지 소식과 기도제목들을 공유하고 있다. 아프가니스탄 중보기도 모임을 이끌고 있는 이신숙 집사(동작공동체)는 더 많은 성도들이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열방을 향해 나가고 싶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 마음껏 기도할 수 있는 중보기도 모임입니다. 선교사님들은 중보기도가 절실하게 필요하데 갈수록 중보기도 하는 성도들이 줄고 있어 안타깝습니다. 이슬람에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에는 온누리교회에 중보기도의 바람이 불었으면 좋겠다. 성도 둘 셋이 모이기만 하면, 어김없이 선교사와 선교지 영혼들을 위한 중보기도가 터져 나온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내가 품고있는 선교사와 선교지 기도모임이 없으면 만들면 된다. 장소가 없을지라도 교회 카페에서 중보기도 모임을 운영하면 된다. 장소와 시간보다 중요한 것이 마음이다. 동역자들에게 기도모임을 하자고 권유하는 것부터 시작하면 된다. “내가 중보기도 모임을 인도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된다면 2000선교본부를 찾아가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2000선교본부에서 선교지를 위한 중보기도 모임의 멘토가 되어 줄 수 있는 목회자, 선교사, 리더십 등을 연결해 준다. 매주 목 오후 7시 30분 서빙고 비전홀에서 들려지는 목요선교예배에서도 선교사들의 간증과 다양한 선교지의 소식을 듣고 기도 할 수 있다.

문의: 〈ON편지〉 070-4949-7886

〈Tim Prayer〉 02-794-1063

중보기도 모임 02-3215-3216

기고

그리스도의 오심은 ‘하나님 나라의 도래’이다

아기 예수가 나신 크리스마스만큼 뜻 깊은 날이 또 있을까? 교회와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이 날을 기억하고, 축하하고, 축복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이다. 황재명 목사가 크리스마스의 참 의미를 되새기는 글을 3회 연재했는데 그 마지막 글이다. 이 글을 읽으면서 그 어느 때보다 간절하게 크리스마스를 기다렸으면 좋겠다.

/ 편집자 주



황재명 목사
(강서공동체)

성경은 하늘에서 내려온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생명을 선포한다(요 3:2).

그리고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새로운 생명을 받는 것이 성도의 ‘거듭남’을 의미하며, 나아가 영원한 생명의 축복을 받는 유일한 길임을

증거한다(요 3:30). 바로 이 축복의 길이 2천 년 전 천사들에 의해 선포된 ‘좋은 소식’의 핵심이며 본질이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눅 2:10~11).

복음서에서는 천사들이 선포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선포하고 있다(마 4:23). 특히 마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신 시점과 하나님의 예정하신 때가 서로 일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막 1:14~15).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구속역사의 때가 이르렀음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계셨고, 바로 그 때가 찼을 때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음을 선포하면서 사람들에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권면하셨다. 오래 전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 예언되어 온 하나님의 나라(사 9:1~7)가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도래하였던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공생애는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선포함으로써 시작되어,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예수님에 의해 증거되고 성취되어 가는지를 보여주는 구속역사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 제자들에게 강조하셨던 것도 하나님 나라의 일이었다(행 1:3).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기까지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무르면서 보여주신 확실한 많은 증거 역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한 것이었다.

하나님 나라와 그 의미 ‘의와 평강과 화락’

그렇다면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

는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공관복음서(마태, 마가, 누가)를 보면 ‘하나님의 나라’라는 용어가 최소 104번 사용되고 있다. 각각의 용례들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을 의미하며, 그 나라가 언제 어떻게 임하는지에 대해 다양하게 설명하고 있다. 예수님도 다양한 비유와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셨다. 따라서 하나님 나라를 한 가지 단어나 개념으로 정의하기란 쉽지 않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다수의 저서를 남긴 신약학자 G.E.라드는 “하나님 나라는 현재적 실체이면서 미래적 축복이고, 거듭난 성도들만이 경험할 수 있는 영적 축복이면서 또한 이 세상 나라의 통치와도 관련 있다”고 주장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성도들이 실제로 경험할 수 있는 현재적 영역(막 10:15)이면서 동시에 미래에 상속되는 축복의 나라(눅 12:32)

5:1~2).

현재 성도의 마음속에서 도래한 하나님 나라의 첫 번째 영적 실체인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어진다는 구원 등식을 설명하고 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righteousness)가 나타나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롬 1:17)고 선언했다. 로마서에 기록된 대로 복음에 계시된 하나님의 의는 먼저 모든 죄악의 문제를 다룸으로 하나님의 공의(justice)를 선포한다(롬 1:18~3:20). 그리고 나서 죄악을 분별하며 정죄하는 구약의 율법 외에 또 다른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음을 선포한다. 그 의가 바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주어진 ‘대속의 은혜(grace)’이며, 그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차별 없이, 아무 대가없이 주어진다(롬 3:21~25). 그러므로 복음 안에 계시된 하나님의 의는 죄악에 대한 심판의 공

을 받고 나서야 비로소 예수님의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깨달았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평화가 임하게 될 것을 말씀하면서 그 평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한다고 선포하셨다(요 20:21~22). 성령을 받음으로 거듭난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하나님의 평화가 주어졌다. 따라서 그 평화를 삶 속에서 온전히 누리며 사는 것이 하나님 나라 안에 거하는 성도의 본연적 모습인 것이다.

참된 기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의 영적 실체 세 번째는 ‘화락’이다. 하나님 나라에 거하는 성도에게 나타나는 영적 특징이다. 2천 년 전 하늘의 천사들이 알려준 예수의 탄생은 온 백성들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었었고, 지금도 그 기쁨의 좋은 소식이 계속해서 세상에 선포되고 있다. 따라서 이 세상의 참된 기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로 인해 주어지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사 61:10). 특히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인해 주어지는 것이 참된 기쁨이며(시 90:14), 그 기쁨은 세상 어떤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큰 기쁨인 것이다(사 4:7).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구속받은 우리는 항상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분이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을 마음껏 선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로 인해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습 3:17)는 사실과 그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출발점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며(히 11:6), 그 믿음은 결국 우리를 즐거움과 기쁨으로 인도한다는 사실이다(벧전 1:8).

성령 안에서 ‘의, 평화, 기쁨’은 현재 도래한 하나님 나라에 거하는 성도들의 삶속에 증거되는 복음의 능력이자 영적 축복이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와 직결된다. 따라서 십자가 없는 하나님 나라는 가짜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향한 감사와 찬양이 없는 하나님 나라는 인간이 만든 종교적 허상이며,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현실도피처에 불과할 뿐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하였으며, 그 나라는 반드시 십자가 위에 세워져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는 크리스마스(Christmas)는 단지 해피 홀리데이즈(Happy Holidays)로 전락하게 됨을 잊지 말아야 한다. 메리 크리스마스!

십자가 없는 하나님 나라는 가짜이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향한 감사와 찬양이 없는

하나님 나라는 인간이 만든 종교적 허상이며,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현실도피처에 불과하다.

이다. 다시 말해, ‘이미’라는 현재성과 ‘아직’이라는 미래성을 동시에 갖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다.

미래에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이미 도래한 하나님 나라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 잘 보여주는 것이 사도 바울이 고백한 하나님의 나라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화락이라”(롬 14:17).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이미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경험할 수 있는 영적 속성은 ‘의와 평강과 화락’이다. 이 세 가지 영적 실체는 성령 안에 거하고 있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것임을 보여줌으로 오직 구원 받은 성도만이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받을 수 있음을 암시한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롬

의와 구원을 향한 대속의 은혜를 모두 포함하고 있는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온전히 성취되었다. 따라서 지금 우리 안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올바르게 알고 체험하며 고백하는 삶인 것이다.

지금 성도 안에 누려지는 하나님 나라의 영적 실체 두 번째는 ‘평강’이다. 여기서 평강은 ‘평화(peace)’를 의미한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평화를 이루었으며, 그 평화는 하나님 아버지와의 온전한 관계 회복(화목)임을 증거하였다(골 1:20, 롬 8:15).

한국어 번역 성경을 보면 ‘평화’라는 원어를 크게 네 단어 ‘평강’, ‘평안’, ‘화평’, ‘평화’로 번역하고 있다. 왜 이렇게 다른 단어로 번역했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 제자들에게 건넨 “너희가 평안하냐”(요 20:26)는 말씀은 사실 상투적인 인사말이 아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룬 평화를 제자들이 누리고 있는지를 물으셨던 것이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당시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를 정확하게 알아듣지 못하였다. 나중에 성령

영화(名畵)와 함께 읽는 성경

하나님께 영광! 땅에는 평화!

조토 디 본도네의 ‘예수 탄생’에 담긴 의미



김진국 집사
(한강공동체, 일. 하. 세.
아카데미 강사)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크리스마스 캐럴이 거리마다 울려 퍼졌다. 얼마 남지 않은 한 해를 마무리하고자 바빠 잔걸음을 걷다가도 거리에 성탄을 축하하는 캐럴이 나오면 잠시 멈추고 경건해지곤 했던 기억이 있다.

그러나 요즘은 도통 크리스마스 캐럴을 들을 수 없다. 엄격해진 저작권법이 가장 큰 원인이고, 전반적인 경기침체와 더불어 우리 사회 일각의 반기독교적 분위기도 한몫을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희망컨대 기독교계가 다 함께 힘을 모쳐 저작권 문제라도 먼저 풀었으면 좋겠다. 나 혼자만의 생각일까? 크리스마스 캐럴이 없는 연말은 너무 밋밋하다.

우리나라 사람 중에 애국가를 4절까지 온전하게 외워 부를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캐럴 ‘고요한 밤 거룩한 밤’도 상황은 비슷하지 싶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주의 부모 앉아서 감사기도 드릴 때 아기 잘도 잔다 아기 잘도 잔다♪”

이 찬양의 4절은 이렇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주 예수 나신 밤 그의 얼굴 광채가 세상 빛이 되셨네 왕이 나셨도다 왕이 나셨도다♪”

뜬금없이 왜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을 들먹이나고? 이 노래가 누가복음 2장 8~20절까지의 핵심 메시지를 함축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태어나실 무렵 로마황제 아우구스티누스는 대대적인 호구조사를 명령한다. 이 때문에 요셉과 마리아는 자신들이 살던 갈릴리 나사렛을 떠나 고향 베들레헴으로 향한다. 이때 마리아는 만삭이었다. 해산을 앞둔 마리아와 요셉은 고향 땅에서 끝내 여관방을 구하지 못하고 외양간에서 예수님을 낳았다.

세상을 구원할 왕이요, 선지자요, 제사장이 될 메시아의 탄생

오늘 이 말씀과 함께 묵상할 그림은 조토 디 본도네(1267~1337년)가 그린 ‘예수 탄생’(1304년)이다. 이 그림은 이탈리아 파도바에 있는 스크로베니 예배당에 소장되어 있다. 화가 조토는 13세기 말 이탈리아 미술의 신기원을 연 사람이다. 그는 원근법과 중첩 등을 활용해 평면적인 중세 회화에 입체감과 생동감을 불어넣은 선구자였다.

조토의 그림을 한번 보자. 한밤중에 어두컴컴한 외양간 한편 구유에 포대기로 싸여 누워 있는 이가 바로 아기 예수님이다. 외양간의 소와 나귀가 마리아와 아기 예수님을 우두커니

바라보고 있다. 예수님의 탄생을 바라보는 나귀는 겸손과 소박함의 상징이다. 이집트로 피신할 때 마리아와 아기 예수가 타고 간 것도 나귀였고(마 2:1~18),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탄 것도 나귀였다.

“보라 너희 왕이 너희에게 오신다. 그분은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셨으니 어린 나귀, 곧 멍에 메는 짐승의 새끼다”(마 21:5).

소는 구약 이사야서의 예언을 상기시킨다.

“황소도 제 임자를 알고 나귀도 주인이 만든 어준 구유를 아는데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알지 못하는구나”(사 1:3).

소나 나귀와 같은 비천한 존재도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를 알아보는데, 너희 교만한 인간

재’를 상징한다. 인간의 몸을 빌려 세상에 오신 아기 예수의 몸은 광채로 빛난다. ‘그의 얼굴 광채가 세상 빛이 되셨네♪’라는 캐럴 가사처럼 그리스도는 한밤중 어둠을 밝히는 세상의 빛이다. 폴린 스미스는 “하나님의 아들은 세상의 빛이 되어 자기 백성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 가운데로 인도하는 왕이 되셨다”고 했다. 이것은 구약시대의 어둠이 물러가고, 복음의 빛으로 충만한 신약시대의 도래를 상징하는 것이기도 하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둠 속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요 8:12).

조토의 그림 위쪽과 오른쪽은 수많은 천군

선지자요, 제사장이 될 메시아의 탄생이라는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세상에서 처음 들은 이는 천대받던 목동들이었다. 유대인 최고 기관이었던 산헤드린의 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은 들을 수 없고, 계층 사다리의 맨 밑바닥에 있는 양치기만이 예수 탄생의 복음을 들을 수 있다는 소리는 물론 아니다.

목동들은 자신의 에고(ego)에 집착하지 않고 모든 걸 내려놓고 겸허하게 복된 소식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을 상징한다. 목동들은 천사가 말해준 것을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놓인 아기를 찾아서”(눅 2:16) 전한다. 최초의 복음 경청자들이 최초의 복음 전파자가 되는 순간이다.

천군천사들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 땅에 평화를 선포한다. 그러나 그 평화는 무조건적인 평화가 아니다. 조건부의 평화다.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만 평화가 선포된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이란 누구일까? 한 신학자의 말처럼 그들은 자신의 생명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임을 인정하는 사람들이다. 하나님은 그 사람들에게 자기는 물론 주변사람들과 화해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 그 사람들에게 기쁨에 겨워 온 세상을 다 품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 복음을 경청하고, 그것을 듣자마자 빨리 전하는 목동들 같이 겸허한 사람들이라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평화를 누릴 수 있다는 말이다.

내 마음의 외양간

고귀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가장 비천한 마구간에서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 더러운 말구유에 친히 누우셨다. 17세기 독일 시인 안셀무스 실레시우스는 이렇게 노래했다.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서 천 번을 태어났어도 네 안에서 태어날 수 없다면 너는 영원히 몰락할 것이다.”

윤심리학자 안셀름 그웬은 이 시를 이렇게 풀이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외양간에서 새로 태어나고 싶어 하신다. 하나님은 내 마음의 외양간에서, 나의 내적 혼돈 속에서, 나의 어둠 속에서 새로 태어나셨다. 하나님이 내 안에서 새로 태어나시면 모든 것이 내 안에서 새롭게 되고, 나는 내 과거에 구속되지 않는다. 나는 충만한 삶에 대한 오래된 꿈을 꾸어볼 엄두를 내 보기도 한다.”

그렇다. 베들레헴 어두운 외양간에서 태어나 세상을 밝히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번 성탄절에는 내 마음의 외양간에서 다시 태어나실 것이다. 내 마음속 어두움과 내적 혼돈을 몰아내주실 것이다. 그날에는 조토의 그림처럼 목동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을 축복해주었던 천군천사들이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할 것이다.



조토 디 본도네가 그린 ‘예수 탄생’(이탈리아 파도바 스크로베니 예배당에 소장).

들은 도대체 뭘 하고 있느냐는 질타가 담겨있는 듯하다. 여기서 육신의 아들이 태어났는데도 불구하고 기뻐하기는커녕 구유 아래에서 침통한 표정으로 아기 예수와 등을 지고 있는 요셉의 모습이 눈에 띈다. 마리아도 마찬가지다. 왜 그럴까? 이들 부부의 침울한 표정은 아기 예수의 몸을 칭칭 감고 있는 포대기와 관련이 있다. 조토가 묘사한 포대기를 보라. 죽은 이가 입는 수의(壽衣)처럼 보인다. 메시아의 탄생을 경축해도 모자랄 판에 수의가 왜 말인가? 이것은 태어나자마자 세상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예수님의 비극적 운명을 예감한 요셉과 마리아의 심정을 대변한다. 그러므로 여기서 수의는 십자가와 동일한 상징물이다. 아기 예수님이 누워있는 구유가 나무관처럼 보이는 것도 마찬가지로 맥락이다.

예수님이 태어난 때는 한밤중이다. 밤은 ‘무지와 죄악’을 상징한다. 밤은 ‘그리스도의 부

천사들이 하늘에서 나타나 들판의 목동들에게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는 장면을 그리고 있다. 세상을 구원할 아기 예수가 마구간에서 태어난 그 순간 ‘노엘’이라는 캐럴의 가사처럼, 저 들밖에 한밤중에 양 뜰에 자던 목자들은 천사들이 전하여 준 주 나신 소식을 듣게 되는 것이다.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눅 2:11~12).

천군천사들은 하나님을 찬양한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눅 2:14).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지켜본 것이 미천한 소와 나귀였던 것처럼 세상을 구원할 왕이요,



패밀리 크리스마스 집회에서 일본 어린이들이 깜찍한 울동을 선보였다.

패밀리 크리스마스 ‘Joyful’

일본어예배 크리스마스 전도축제

지난 15일, 서빙고 온누리교회 신관 5층 경찬홀에서 크리스마스를 미리 축하하는 흥겨운 잔치가 열렸다.

일본어예배부가 전도축제 패밀리 크리스마스 ‘Joyful’을 개최한 것. 이날 잔치에는 이촌동에 거주하고 있는 일본인들과 자녀들, 일본어예배 성도 약 3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파워키즈의 울동, 게임, 한글강좌(한글과 복음을 전하는 강좌), 푸치파푸스(취학 전 어린이)들의 장기자랑, PK댄스팀의 공연, 김철희 목사의 메시지, 일본어예배성가대의 성탄찬양 메들리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김철희 목사(일본어예배 담당)는 “세상에는 여러 종류의 만남이 있지만 진짜 중요한 만남은 예수님과의

만남”이라면서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모두가 구원받기를 바란다”고 축복했다.

다나카 씨는 “오늘 나도 즐거웠지만 무엇보다 아이가 즐거워해서 너무 좋았다”고 했고, 요네쿠라 씨는 “이촌동에 사는 일본인들을 위해 온누리교회가 행사를 열어주셔서 정말 감사하다”고 인사했다.

봉사자 आयु미 자매는 “아이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동안 이 아이들을 품고 기도해온 보답을 받은 것 같아 행복했다”고 고백했고, 노리코 자매는 “오늘 메시지와 찬송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크리스마스가 예수님 생일이라는 걸 알려줄 수 있어서 좋았다”고 말했다.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교역자들이 준비한 ‘크리스마스 블레싱’

양재 온누리교회 간사와 직원들 격려

“당신이 곁에 있어 행복합니다!”

양재 온누리교회 교역자들이 간사와 직원(한식당, 상담실, 방송실, 선교재단, 두란노서점, 미화 용역)들을 위해 아주 특별한 잔치를 열었다. 지난 18일 양재 온누리교회 화평홀에서 ‘크리스마스 블레싱’을 개최한 것. 크리스마스 블레싱은 양재 온누리교회 교역자들이 한 해 동안 교회 곳곳에서 수고한 간사들과 직원들을 격려하고 축복하기 위한 자리다. 음식준비부터 테이블세팅, 서빙, 선물까지 정성스럽게 준비했다.

이상준 목사는 “교회 곳곳에서 귀한 모습으로 섬겨주셔서 늘 감사하다”며 “오늘 교역자들의 작은 섬김을 통해 간사들과 직원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내년에는 더 알차게 준비해야겠다고 다짐했다”고 말했다. 이요섭 형제(한식당)는 “오늘이 한 해 동안 가장 기억에 남는 날”이라며 “따뜻하게 섬겨주신 목사님들께 감사하다”고 인사했다.

“간사님들을 축복합니다”

서빙고 권사회 ‘간사 블레싱’ 개최

서빙고 온누리교회 권사회가 지난 18일 서빙고 간사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하여 ‘간사 블레싱’을 개최했다. 서빙고 권사회는 이날 행사에 참석한 간사들을 위해 손수 음식을 만들어 오는 등 정성과 사랑을 선물했다. 간사 블레싱은 환영인사, 만찬, 난타공연, 간사 특선, 레크리에이션, 선물 증정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간사 블레싱 행사에는 이재훈 담임목사가 깜짝 방문했다. 이재훈 목사는 간사 블레싱을 열어 준 권사회에 감사 인사를 드리고, 간사들을 축복했다. 이 목사는 “오늘 권사님들의 위로와 섬김을 통해 불철주야 교회를 위해 수고하는 간사님들의 수고에 조금이라도 보답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격려했다.

김경실 간사(러브소나타)는 “권사님들이 간사들을 위해 정성스럽게 준비해주신 모든 것들이 감동이였다”고 했고, 윤미화 간사(여성사역)는 “권사님들의 섬김과 격려를 통해 큰 위로를 받았다”고 고백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군인 소망교회 재건축 감사예배

지난 15일 제2군수지원사령부 55탄약대대 군인 소망교회에서 ‘군인 소망교회 재건축 감사예배’를 드렸다. 군인 소망교회 재건축 예배에는 이해영 목사(남양주 온누리교회)와 남양주 온누리교회 성도들, 김용석 사령관(제2군수지원사령관), 최대성 대대장(55탄약대대) 등이 참석했다. 군인 소망교회는 남양주 온누리

교회 C공동체 진접다락방이 2016년부터 1다락방 1사역으로 섬기고 있다. 교회시설 안전문제가 제기되는 바람에 없어질 위험에 처해 있었는데 온누리교회 성도들과 타 교회 성도들의 후원으로 지난 10월 28일부터 재건축과 부속건물 리모델링 작업에 착수했다. 지난 12월 15일 재건축을 완료했다. / 권찬송 기자

‘가족과 함께 듣는 잠언 말씀’

남양주 온누리교회가 지난 주일(16일) ‘가족과 함께 듣는 잠언 말씀’을 주제로 특강을 개최했다. 이날 강사로 초대된 김성진 교수(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는 부모와 차세대들에게 예배의 중요성과 성경적인 가정관이 무엇인지 강의했다.

김정미 전도사(남양주 온누리교회)는 “이번 특강은 부모와 자녀가 주님 안에서 더욱 가까워지는 귀한 시간이였다”고 말했다.

온누리복지재단 ‘서울시 유공법인’ 선정

사회복지법인 소통나눔 콘서트에서

온누리복지재단이 서울시에서 주최한 ‘사회복지법인 소통나눔 콘서트’에서 유공법인으로 선정됐다. 서울시 유공법인 선정 기준은 사회복지법인의 공공성 강화 및 사회복지의 증진에 공헌한 법인이다. 온누리복지재단은 산하 12개 시설을 운영

하면서 이웃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있다.

정호욱 상임이사는 “앞으로 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려는 온누리복지재단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관심과 후원 덕분에입니다”

NGO 더멋진세상 창립 8주년 감사예배

NGO 더멋진세상 창립 8주년 감사예배를 드렸다. 지난 18일 서빙고 온누리교회 순형홀에서 드린 NGO 더멋진세상 창립 8주년 감사예배에는 박종길 목사, 도육환 목사, NGO 더멋진세상 대표 김광동 장로, 김창욱 사무총장, 강석우 홍보대사, 후원자 등 80여 명이 참석했다.

NGO 더멋진세상은 20개국 27개 마을에서 지구촌 이웃들을 돕고 있다. 긴급구호사업을 통해 재난재해 지역 이웃들도 섬기고 있다.

이재훈 담임목사는 영상을 통해

축하 메시지를 전했다. 이 목사는 “NGO 더멋진세상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이루신 섭리”라면서 “앞으로도 NGO 더멋진세상 스태프, 임직원, 봉사자, 선교사, 후원자 모두가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 얻기를 바란다”고 축복했다.

김광동 대표는 “성도들의 관심과 후원 덕분에 지금까지 올 수 있었다”면서 “중동아시아와 유럽 등지로 사역의 지경을 넓혀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창작스튜디오 지원자’ 공모

인카네이션문화예술재단, 12월 31일까지

(재)인카네이션문화예술재단(이하 예술재단)이 작업실(스튜디오)이 없어 작품 활동을 못하는 청년 작가들을 돕기 위해 ‘창작스튜디오 지원자’를 공모한다. 모집분야는 회화(평면)이다. 대상은 대학졸업예정자 혹은 만 40세 이하 청년작가다. 12월 31일까지 자기소개서(연락처, 학력, 경력사항 기재), 창작활동계획서, 포트폴리오(작품 이미지 20매)를 홍익대학교 문헌관 901호에 방

문접수하면 된다. 서류와 면접시사를 거쳐 2019년 1월 7일 최종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예술재단에서 제공하는 스튜디오는 강원도 고성군 죽왕면 곡실평길 330에 위치해 있는 레지던스다. 입주 기간은 2019년 2월 20일부터 12월 20일까지다. 중기(6개월) 및 장기(10개월)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문의: 2018icaf@gmail.com

KIBI ‘송년의 밤 5779’ 행사 개최

KIBI(한·이성경연구소)가 지난 17일 서빙고 온누리교회 시온홀에서 ‘송년의 밤 5779’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성도 120여 명이 참석했다.

KIBI ‘송년의 밤 5779’ 행사에서는 권혁승 교수(서울신학대학교 구약학 명예교수)가 하누카(수전절)의 의미와 유례에 대해 강의했다. 다과 및 친교 프로그램도 이어졌다.

하나공동체 스태프 간증



/ 최영일 총무(하나공동체)

탈북자들의 진정한 친구

공동체가 발전하는 과정에는 항상 보다 나은 사회에 대한 사람들의 소망이 담겨있다. 인류는 국가 공동체든, 지역 공동체든 자신이 속해 있는 공동체가 최선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고민해왔다. 근대에 들어서는 계몽주의적 합리주의와 자아 이론에 기초한 공동체들을 탄생시켰다. 그 속에서 사람들은 전체 속에서 부분이 매몰되지 않고, 각자의 다양성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을 찾기 위해 골머리를 앓아왔다. 흔히 다양성을 인정하는 사회를 ‘유토피아’와 ‘에덴동산’이라고 지칭한다. 사람들이 유토피아나 에덴동산이라는 말을 쉽게 사용하는 것은 최선의 공동체를 만들고자 하는 인류의 오랜 숙원 때문이다. 필자가 살았던 북한의 사회주의는 ‘수령운명공동체’를 강조했다. 수령이 있어야 인민이 존재한다는 것이 수령운명공동체의 핵심이다. 북한의 수령운명공동체는 인류의 보편적 공동체주의와 대립적이다. 이 사상은 ‘출신성분’을 최상의 가치로 여기며 사회적 위계질서를 만든다. 그 규범 내에서 소외된 사람들은 철저하게 무시 받고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사회의 하층으로 구분된다.

한국사회에 탈북자 공동체를 논하는 말들이 많다. 많은 사람들이 탈북자 예배, 탈북자 공동체를 만들기가 너무 어렵다고 한다. 우리는 열심히 섬기는데 탈북자들이 전혀 변화되지 않는다고 말한다. 하지만 남한 사람들이 탈북자들에게 얼마나 가깝게 다가갔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그냥 교회에 나오라고 하는 것과 한 달에 생활비 일부를 지원해주는 것이 탈북자 사역의 전부라고 생각했기에 이런 일들이 발생한 것이다. 탈북자들과 삶을 나누고 함께 교제해야 한다.

온누리교회 하나공동체는 탈북자들의 진정한 친구가 되어주고 있다. 말씀으로 그들의 얼어붙은 마음을 녹이고 있다. 몇몇 탈북자들은 말씀을 잘 모르기 때문에 성경공부를 북한의 세뇌 교육과 동일한 것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뒤에는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이 주시는 행복을 누린다.

사도행전에 나온 초대 교회의 정체성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인 공동체였다. 소수 사람들의 변화와 헌신을 통해서 공동체가 예수님께 헌신하는 거룩한 성소로 세워졌다. 하나공동체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예수공동체로 변화될 거라고 확신한다.

경기A공동체 종강예배 간증



/ 이삼형 총무(경기A공동체)

농촌 교회와의 우의(友誼)

지난 12월 6일 경기A공동체가 아주 특별한 종강예배를 드렸다. 충북 보은 지역 11개 농촌 교회 목회자 부부를 초대해서 함께 예배를 드렸다. 충북 보은은 속리산 법주사의 영향으로 전국에서 복음화율이 가장 낮은 지역이다. 우리는 이번 종강예배를 통해서 그곳에서 힘들게 목회를 하고 계시는 목사님과 사모님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싶었다.

이번에 초대된 목회자 중에서 김영수 목사님(보은 회남교회)은 온누리교회 사역자 출신이다. 경기A공동체는 김영수 목사님과 함께 보은 지역에 있는 베트남 이주 여성들을 섬기고 있다. 안산M센터 베트남어예배가 이 사역에 동역하고 있다. 이번 종강예배에 보은 지역 목회자 부부를 초대할 수 있었던 것도 지난 5년 동안의 섬김이 연결고리가 되었다.

경기A공동체에는 11개 다락방이 있다. 각 다락방이 보은 지역 교회 하나씩 담당하고 있다. 지난여름 경기A공동체는 보은 지역 교회 연합 아웃리치를 실시했다. 다락방장님들을 중심으로 각 교회 주변 축호전도와 교회가 필요로 하는 부분을 물심양면으로 섬기고 봉사했다. 차세대 프로그램은 양재 차세대사역팀의 도움을 받았다.

보은 지역 교회와의 교제의 끈은 비단 아웃리치에만 국한된 게 아니다. 지난 추수감사절에는 공동체 전체가 보은 지역에서 농사지는 햅쌀로 추수감사헌물을 드렸다. 올해 마지막 종강예배에는 그분들을 직접 초청했다. 그분들과 함께 종강예배를 드림으로써 농촌 교회와의 우의(友誼, 친구 사이의 정)가 한층 돈독해지는 것 같았다. 거기서 그치지 않고 우리는 성탄절을 맞아 보은 지역 독거노인들을 위해 작은 온정을 모았다. 그분들이 추운 겨울을 조금이나마 따뜻하게 지내시길 바라며 라면과 수면양말 등을 보내드렸다.

보은 지역 11개 농촌 교회를 도울 수 있었던 것은 경기A공동체만의 힘이 아니었다. 차세대사역팀의 도움을 받기도 했고, 안산M센터 같은 온누리교회 전문 기관과 연합함으로써 감당할 수 있었다. 협력하여 선을 이뤄가는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창의적이고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온누리교회 인프라와 공동체 인적 자원이 융합해 열악한 환경에 있는 지역 교회를 지원하는 운동이 지속적으로 일어나면 좋겠다. 시골 집 연탄불이 꺼질까봐 걱정하면서도 종강예배에 참석해 주신 보은 지역 목사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전도폭발훈련학교 수료 간증



/ 윤미숙 집사(강남B공동체)

그리스도인이란...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 하면서도 신실한 믿음을 갖지 못했다. 세상 사람들처럼 내 생각과 의지를 따라 살았다. ‘내가 참된 그리스도인일까?’ 생각해봤다. 그러면서 매우 큰 자괴감에 빠졌다. 신앙과 삶이 구분되어 있었고, 주님을 내 삶의 진정한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영적인 위기감을 느끼고 주님이 내 삶의 진정한 주인이 되기를 원한다고 기도했다. 하지만 혼자 힘으로 주님을 찾는 것이 쉽지 않았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충만한 신앙공동체에 참여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을 경험하고 싶었다.

그래서 성경통독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그러면서 말씀을 깊이 있게 깨닫게 됐다. 말씀을 통해서 회복된 이후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받은 은혜를 전하고 싶었다. 우연히 전도폭발훈련학교 스태프 한 분을 알게 됐다. 그분은 내게 전도폭발훈련학교에 참여해보라고 권했다. 잠시 망설였다. 전도폭발훈련학교의 프로그램이 힘들다고 들은 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변화시키셨다. 하나님은 전도폭발훈련학교를 통해 새로운 은

혜를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셨다.

전도폭발훈련학교에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가득했다. 나는 전도폭발훈련학교에서 복음의 능력을 새롭게 깨닫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기 시작했다. 많은 사람들과 은혜를 나누는 효과적인 방법도 배울 수 있었다.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졌다. 그동안 왜 이 훈련을 받지 않았을까 후회가 됐다. 주변에 믿지 않는 친구들, 아들과 며느리에게 복음을 제시하며 함께 교회에 가자고 권면했다.

그리스도인이란 주님의 지상명령인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해야 한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할지 몰라 망설이거나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 분들에게 전도폭발훈련학교를 소개하고 싶다. 교회에 다니면서도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들에게도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삶의 소망과 기쁨을 되찾도록 도울 수 있다. 이 귀한 사역에 동참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혼자행복학교 수료 간증



/ 이경화 성도(가정사역공동체)

그러나 주를 믿고 의지한다

2015년 1월, 3개월 동안의 이혼조정기간을 거쳐 남편과 법적으로 완전히 남남이 되었다. 딸아이를 홀로 키우면서 가정을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을 안고 하루하루를 힘들게 살아 가고 있었다. 아이는 거의 매주 주말이면 아빠와 할머니를 만났다.

아빠와 할머니를 만나고 돌아오는 날이면 아이는 속상한 마음에 울기도 하고, 짜증을 부리기도 했다. 나는 이혼 전보다 아이와 함께 보내는 시간을 늘렸다. 어느 날 갑자기 아이가 아빠와 할머니와 살고 싶다고 말하기 시작했다. 처음 겪는 혼란스러운 상황이었다. 아빠가 보고 싶어서 하는 말이라니 하고 흘려버렸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아이는 점점 강하게 자신의 의견을 말하기 시작했다. 너무 속상했다. 아이가 잠들고 나면 홀로 거실에 나와 울면서 기도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아이를 키워야만 아이가 올바르게 자랄 수 있다’는 교만한 마음을 깨닫게 하셨다. 나는 아이의 양육권을 전 남편에게 넘겼다.

지인을 통해 DRS예배를 소개받고 참석하게 됐다. 처음 예배에 나갔을 때는 사람들로

부터 받았던 상처 때문에 쉽게 마음을 열지 못했다. 하지만 조장님과 총무님, 팀장님의 도움으로 예배에 꾸준히 참석했다. 조장님의 권유로 ‘32기 이혼자행복학교’도 수료했다. 사실 이혼자행복학교에 등록했을 때는 큰 기대가 없었다. 하지만 학교가 진행되는 5주 동안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릴 수 있었다.

이혼자행복학교에 참여하면서 내게 큰 변화가 생겼다. 전에는 마치 세상의 모든 불행이 나에게만 집중된 것 같았다. 하지만 이혼자행복학교를 통해서 자기연민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알게 됐다. 나를 힘들게 했던 전 남편과 시대 친구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위해 중보기도하기 시작했다. 내 문제에만 매몰되어 남을 돌아볼 여유가 없었는데 지금은 주변을 돌아보고 공동체를 섬기고 있다.

나는 아직도 회복 중이다. 아직도 길을 가다 우리 아이 또래들을 볼 때면 아이를 양육하지 못한 것에 대한 죄책감이 들어 힘들 때가 있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새롭게 회복시키시는 주님을 믿고 의지한다.

장로칼럼

Z세대와 포노 사피엔스(Phono-Sapience)



황윤일 장로
(서초D공동체,
허브공동체)

미국과 유럽에서는 1995년 이후 출생한 세대를 ‘Z세대(Generation Z)’라고 부른다. 베이비 부머들이 낳은 자녀들을 ‘X세대’라고 부르고, 밀레니엄 시대 젊은이들을 ‘Y세대’라고 부른다. Z세대는 지금 청춘으로 살아가고 있는 세대를 지칭한다. 한국에서는 ‘M세대’라고 부르기도 한다. 우리나라에서 이 세대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태어났다. 외환위기 시절 무너진 경제를 살리고 자 애쓰기 위해 맞벌이 하는 부모들이 많았다. 너무 바쁜 일상 때문에 자녀들에게 제대로 된 가정교육을 시키지 못했다. Z세대는 부모들에게 제대로 된 가정교육을 받지 못하고 자라는 경우가 많았다.

Z세대 이후 태어난 세대를 ‘포노 사피엔스(Phono-Sapience, 스마트폰 인류)’라고 부른다. 그들은 이전 세대와는 달리 세상의 모든 것이 스마트폰으로 연결되어 있다. 그들은 원하는 모든 정보를 순식간에 얻을 수 있다. 또한 SNS(Social Network Service)를 떠나서 살 수 없다. 어린 시절 부모의 스마트폰을 갖고 놀았고, 어느 모임이든 시작할 때 단체 채팅방을 만든다. 온라인 대화에 길들여져 있어서 오프라인 소통이 어려운 세대다. 그들을 교회로 이끌고 신앙을 갖게 하는 것도 쉽지 않다.

지금과 같은 교회 시스템에서 젊은 세대들이 어떻게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예배와 모든 사역을 온라인으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닐까? 온누리교회는 국내 다른 교회와 비교했을 때 비교적 IT기술을 활용한 사역들이 많이 있다. 대표적인 것이 CGNTV다. 우리는 CGNTV

를 통해서 언제든지 설교와 필요한 성경 말씀들을 모바일로 들을 수 있다. 젊은 세대를 잘 세우기 위해서는 이점을 잘 활용해야 한다. 그들이 거부감을 갖지 않고, 그들에게 익숙한 방법으로 복음을 전해야 한다.

우리가 지속적으로 Z세대를 전도하고, 교회의 리더로 키우려면 그들의 문화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몇 가지 고민하고 기도해야 할 부분이 있다.

첫째, 그들은 미래보다는 오늘 하루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세대임을 인식해야 한다. 그래서 크리스천이 현실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그들은 관계 맺기를 중요하게 생각하면서도 진정한 사귀기를 어려워한다. 이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지도하고 가르칠 필요가 있다. 셋째, 유튜브 같은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수많은 정보들을 받아들이는 세대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그들이 온라인상에 건강한 콘텐츠(Contents)를 계속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한 오프라인(Off-line)상의 만남을 적절하게 활용하여 신앙 선배들의 체험을 들려주고, 신앙공동체 안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현재 650만 명의 Z세대와 그 이후 세대들이 한국에 살고 있다. 전 세계에는 26억 명의 포노 사피엔스가 살고 있다. 그들이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교회 리더로 세워질 수 있도록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 세대에는 소망이 없다.

많은 성도님들이 이번 ‘작은예수 40일 새벽기도회’에서 미래세대를 잘 양육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다.

권사칼럼

살아있는 간증 ‘세례’



윤여홍 권사
(양재 세례사역팀)

매월 마지막 주일은 가장 바쁜 주일이다. 양재 온누리교회 2부 예배부터 4부 예배까지 세례식이 세 번 거행되기 때문이다. 2부 예배에서는 성인세례식, 3부와 4부 예배에서는 유아세례식이 진행된다. 세 번의 세례식을 모두 진행하고 나면 몸이 많이 피곤하지만 세례신청자가 많아서 세례식을 세 번이나 하는 거니까 기쁘고 감사한 마음이 더 크다. 양재 세례사역팀원들은 매주 주일 아침 2부 예배를 드리고 곧바로 사역에 임한다. 첫째 주와 둘째 주에는 세례교육을 실시한다. 셋째 주에는 세례대상자들의 간증을 듣는다. 우리는 이 시간을 손꼽아 기다린다. 왜냐하면 그들의 간증이 눈물과 감동을 자아내기 때문이다.

아기가 아플 때 부모로서 할 수 있는 게 정말 아무 것도 없다고 울부짖자 “그 아이는 네 아기가 아니라 내가 네게 맡긴 아이니 걱정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크게 깨달았다는 한 젊은 부모의 간증을 듣고 있노라면 내 믿음의 약함을 반성을 하기도 한다. 한 자매는 자기가 교회로 돌아오기를 평생 기도하셨다는 친정어머니가 돌아가신 이후 길거리에서 어린 딸 손을 잡고 가는 엄마들만 보면 다리에 힘이 빠져 주저앉아 엉엉 울곤 했단다. 늦게나마 하늘에 계신 엄마에게 속죄하는 마음으로 교회로 나오게 되었다고 고백했다. 70세가 넘는 한 어르신은 아들과 딸을 교통사고와 암으로 하늘로 먼저 보내고 눈물 속에 살다가 어느 날 문득 ‘사랑하는 아들과 딸을 만나려면 내가 지금이라도 예수 믿고 하늘나라에 가야지’라고 깨달았다고 한다. 주위 사람들로부터 ‘

도마’라고 불릴 정도로 의심이 많았던 한 영화감독은 인도 출장을 갔다가 도마순교교회를 방문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큰 감동을 받고 교회에 오게 되었다고 간증하기도 했다. 또 어떤 이는 사업이 잘 되자 가족을 버리고 집을 나가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완전히 파산해서 할 수 없이 가족들에게 돌아왔는데 그동안 아내가 매일 집나간 자신을 위해 눈물로 기도해왔던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한다. 그 가정은 아내에게 용서를 구하고 가정과 교회로 돌아왔다고 고백했다. 이처럼 수많은 성도들의 간증을 듣는 것은 정말 귀한 시간이 아닐 수 없다.

몸이 힘들 때도, 부담이 될 때도 있다. 그러나 살아있는 간증을 듣는 것만으로도, 또 어린이들의 해맑은 미소와 마주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하다. 이 귀한 사역에 함께 하는 성도들이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다.

세례사역팀원 모집
시간: 주일 오전 10시 30분 ~ 오후 1시
내용: 세례 교육 및 세례 예식 섬김
문의: 02-570-7311, 010-6379-4591



신앙에세이



이준인 전도사
(여호수아공동체)

어렸을 적 실수로 유리창을 깬 적이 있는가? 그때 ‘새 유리창을 먼저 구해야 할까?’ 아니면 ‘집 주인에게 알려야 할까?’ 정답은 집주인에게 먼저 알려야 한다. 깨진 유리창을 새 유리창으로 교체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데 왜 집주인에게 먼저 이야기해야 할까? 그 이유는 유리창의 주권이 주인에게 있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에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해결하려 애들바등할 것이 아니라 인생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만사형통할 줄 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과 고난이 찾아오는 것은 상관이 없어 보인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에 고난이 찾아오면 그리스도인들은 그 문제를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어제의 은혜’가 아닌 ‘오늘의 은혜’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우리는 흔히 경험을 의지한다. 유명인의 노하우에 큰 관심을 갖기도 한다. 경험과 노하우가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지는 모르지만 근본적인 역할은 하지 못한다. 또 새로운 유형의 문제를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적지 않은 충격에 휩싸이게 된다. 과거의 기억과 경험에만 의존하면 더 이상 발전이나 새로운 도약을 할 수 없게 된다.

시편 80편에서 시편 기자는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 때문에 혼란스러워 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 출애굽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을 늘 믿었다. 그러나 새로운 은혜에 대한 갈급함 없이 과거의 은혜에 만족하며 살았다. 과거의 은혜는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아

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다. 시편 80편 11절에서 “그 굽은 가지들은 바다까지 뻗어 내렸고 그 가지들은 강까지 미쳤습니다”는 표현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의 은혜에 안주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이스라엘의 지배력은 지중해 연안과 티그리스, 유프라테스강까지 영향을 주었다. 그들은 화려했던 과거에 도취돼 하나님께 나아가 새로운 은혜를 구하지 않았다. 결국 뜻하지 않은 고난을 만나자 당황하게 된다.

오늘날 교회에도 과거에 체험했던 은혜에 머물러 있는 성도들이 적지 않다. 그러나 그 은혜가 평생을 지켜주지 못한다. 우리는 매일 새로운 은혜가 필요한 존재다. 지금 이 순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새로운 손길과 은혜를 구해야 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편 80편 12절에서 더욱 당황한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보호하

시기 위해서 세우신 울타리를 직접 무너뜨리셨기 때문이다. 왜 그러셨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숭배 때문이었다. 하나님은 담을 헐어 지나가는 이들이 포도를 따고 멧돼지들과 들짐승들이 먹도록 허락하셨다. 울타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의미하고, 멧돼지와 들짐승들은 세상 것들과 원수를 의미한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서 우리가 우상숭배를 계속해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보호하심의 중요성, 즉 울타리의 중요성을 깨우치게 하신다. 그래서 세상의 고난과 원수가 우리의 삶을 해하는 것을 허락하신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말씀과 진리에서 벗어나면 보호를 해제하시는 분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이켜 은혜를 회복케 하시기 위한 주권자의 사인이다.

인생에 찾아온 고난이 있는가? 중요한 것은 닥쳐온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먼저다.

오늘의 은혜



주일강단

〈3면에 이어〉

생명의 구속자 그리스도

“내 삶에 허물이 있구나, 나로 인해 일어난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야 우리가 죄인 됨을 깨닫습니다. 가장 먼저 속죄제물 되신 예수님을 만나서 관계가 회복되고, 갈등이 치유되고, 문제가 해결됩니다.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더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성령의 역사로 내가 얼마나 절망스러운 존재인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자신의 원죄를 비로소 보게 되는 것입니다. 원죄에 대한 용서 없이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속죄제물 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원죄에 대한 완전한 용서를 체험하면서 화목제물 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과 내가 교제할 수 있는 은혜가 주어졌다는 것과 원죄에 대한 용서를 경험한 사람만이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 있습니다. 화목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닮아가는 사람은 ‘나도 예수님처럼 섬기는 삶을 살고 싶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소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섬김의 삶을 살게 됩니다. 섬김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렸던 예수님처럼 삶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예수님처럼 자신을 번제물로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헌신으로부터 우리에게 오셨지만 우리는 정반대로 밟아 올라갑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변화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피가 계속적으로 우리를 정결하게 변화시키는 일을 성령님을 통해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을 통해 흠 없는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신 그리스도의 피가 더욱 우리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

서 깨끗하게 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않았습니까?”(히 9:14).

그리스도 보혈의 능력

예수님의 성육신은 단 한 번으로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성육신하신 몸으로 지금도 계십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림은 단 한 번의 사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그분의 피가 지금도 성령을 통해서 계속 역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를 지을 때마다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해야 합니다. 그분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야 우리가 용서받고, 회복되고, 주님을 섬길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성령님을 통해 계속해서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변화시킴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고, 세상을 섬기는 삶으로 변화시켜 갑니다.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처럼 소제물이 되고, 번제물이 되고, 섬김과 헌신의 삶으로 나아가게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갈등, 문제, 죄로 인한 상처 등 모든 것을 치유하시는 역사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는 생명을 구속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성령님이 행하시는 일은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에게 뿌려지고, 그 피의 능력이 우리의 생명을 살리고, 그 피의 능력이 우리의 더러워진 양심으로부터 정결하게 함으로 참된 하나님께 드려진 삶으로 변화시켜 갑니

다. 그리스도의 피의 구속을 날마다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생명의 구속자가 되기 위함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배로운 피를 흘리심으로 구약에 예언된 피를 통한 생명의 구속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에게 용서가 주어지고, 치유가 주어지고, 회복이 주어지고,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계획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쓰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려는 계획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사모하고, 체험하고, 승리하며,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성탄은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을 체험하는 복된 성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변화시키심을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작은 예수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과 완전한 죄 사함과 보혈의 능력을 체험하고, 승리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피 흘려 우리의 생명을 구속하러 오신 예수님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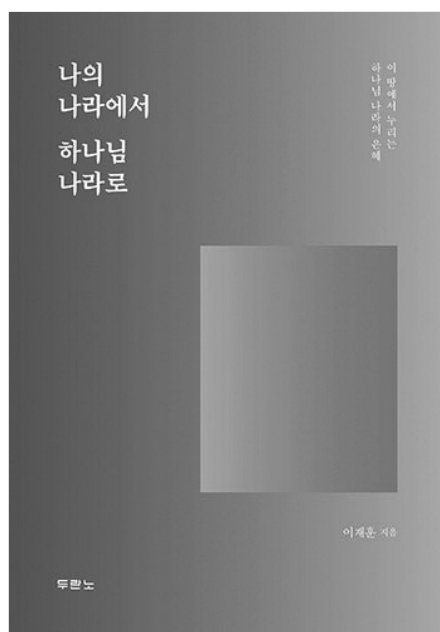
맞이하고 기뻐하며 임재를 체험하는 성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정리 김남원 부장 one@onnuri.org

두란노 신간

하나님 나라에 거하는 방법



〈나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이재훈 저 | 두란노 | 12,000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전하신 메시지도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이었다.

“회개하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마 3:2).

예수님께서는 앞으로 올 하나님 나라뿐만 아니라 성도로서 누릴 수 있는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이재훈 목사가 펴낸 〈나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에서는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설명하고 있다.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 안에 거하는 삶’을 의미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안에 거하면서 천국 백성으로서 하나님 다스림을 받으며 살게 된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한다. 하나님의 통치 안에 거하는 삶을 살게 되면 스스로 가지고 있는 이상과

꿈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결국 스스로가 삶의 주인이 되는 ‘나의 나라’에 머물게 된다.

이재훈 목사는 하나님 나라를 떠나 나의 나라에 머물 때 고난이 온다고 말한다.

“모든 고난은 하나님 나라를 떠났기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가리켜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영원히 살지 못하는 인간의 한계, 지혜의 부족함, 건강의 결핍, 관계의 아픔 등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나라 밖에 있기 때문에 생겨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에덴동산 밖으로 쫓겨나 하나님 나라 밖에 있는 이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대하십니까?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들을 찾으시고 추적하시고 찾아오시며, 그들을 하나님 나라 안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로 초청하고 계신다. 이재훈 목사는 이 책에서 이와 같은 사실을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첫 번째 이 땅에 오심으로 세상을 끝내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구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 주시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기간을 허락하시고 다시 오신다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 거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이재훈 목사는 회개, 복, 말씀, 심판, 생명, 헌신, 종말, 부활, 권위, 사탄, 고난, 관계, 어린이, 교회, 일터 등 15가지 영역에서 그 구체적인 방법을 소개하고 있다.

이재훈 목사는 우리의 신앙을 “나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가는 여정”이라고 말한다. 그 여정 가운데 많은 유혹과 환란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그 모든 여정 가운데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세상의 어떤 권세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하늘나라의 문을 여는 열쇠이기 때문입니다.”

/ 권찬송 기자 kcs123@onnuri.org

온누리교회 정관

- 2018.11.3 당회 의결
- 2018.12.16 공동의회 의결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 교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온누리교회”라고 칭한다.
영어로는 “Onnuri Church”로 표기한다.

제2조 (소재지)

본 교회의 주 소재지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로 347-11에 둔다.

제3조 (목적)

본 교회는 예수님께서 주인 되시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사도행전적 교회를 표방하고, 복음전도와 선교(해외선교, 사회선교)를 통하여 온누리에 하나님 나라를 이룩하는 선교적 교회로 쓰임 받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교회의 주권)

- ① 본 교회의 주권은 교회의 머리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
- ② 본 교회정치에 관한 최종 의사결정권은 교인들에게 있다.

제2장 교인

제5조 (교인의 자격)

- ① 본 교회가 정한 절차를 거쳐 등록된 성도는 본 교회의 교인이 된다.
- ② 본 교회의 교인이 특별한 사유 없이 무단으로 1년 이상 교회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에는 교인의 자격이 정지된다. 단 자격이 정지된 교인이 다시 본 교회로 돌아온 때에는 1년이 경과된 후 당회의 결의로 복권시킬 수 있다.

제6조 (책임)

본 교회의 교인은 예배와 교육훈련에 성실히 참여하고 교회의 치리에 복종하며 헌금과 봉사를 통해 주님의 몸 된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책임을 진다.

제7조 (권리)

본 교회에 등록된 세례(입교, 이하 같다)교인은 본 교회가 정한 바에 따라 교회의 제직회, 공동의회 등 회의에 참여할 수 있고, 각종 회의에서 의결권과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갖는다.

제3장 심의 및 의결기관

제8조 (공동의회)

- ① 공동의회는 만 18세 이상 등록된 세례교인으로 구성한다.
- ② 정기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하며, 임시회의는 당회장, 당회서기 또는 만 18세 이상 등록된 세례교인 1/4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
- ③ 당회장이 공동의회 의장이 되고, 당회장은 의장 대행자를 지명하고 의장의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서기는 당회서기가 겸임한다.
- ④ 공동의회는 의장이 회의 1주일 이전에 회의일시, 장소, 안건을 후보 또는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 소집하고, 출석위원으로 개회하며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⑤ 공동의회 의 권한은 아래와 같다.

- 1. 교회 주요 정책 및 재산에 관하여 당회가 상정한 안건의 의결
- 2. 교회 예산안 및 결산안의 의결
- 3. 담임목사 위임
- 4. 장로, 권사, 안수집사의 선출
- 5. 기타 당회가 상정한 안건의 의결

제9조 (제직회)

- ① 제직회는 목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 전도사로 구성한다.

- ② 제직회의 정기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하며, 임시회의는 당회장, 당회서기 또는 제직회원 1/3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 의장은 회의 1주일 이전에 회의일시, 장소, 안건을 공고하여야 한다.
- ③ 당회장이 제직회의 의장이 되고, 당회장은 의장 대행자를 지명하여 의장의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 ④ 제직회는 출석위원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⑤ 제직회는 당회가 상정한 안건을 심의, 의결한다.

- 제10조 (당회)
- ① 당회는 담임목사, 부목사, 시무장로로 구성한다.
- ② 담임목사가 당회장이 되고, 담임목사 유고시 또는 기타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당회서기가 당회장을 대행한다.
- ③ 당회는 서기 1인을 두고, 서기는 장로 중에서 당회운영위원회가 추천하여 당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서기 유고시 당회운영위원 장로 중 최연장자가 서기를 대행한다.
- ④ 당회는 당회장, 당회서기 또는 재직 당회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하고, 재직 당회원 1/5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⑤ 당회의 사무는 아래와 같다.

- 1. 공동의회 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사전 심의
- 2. 교회 주요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 3. 담임목사 청빙 시 최종 후보자 결정
- 4. 당회운영위원 중 장로 위원의 선출과 해임
- 5. 장로, 권사, 안수집사의 선출
- 6. 교인의 치리에 관한 사항
- 7. 기타 당회운영위원회가 상정한 안건의 의결

- 제11조 (당회운영위원회)
- ① 당회운영위원회는 당회장, 당회서기, 당회에서 선출한 15인 이내의 장로 운영위원 및 당회장이 지명하는 부목사 2인으로 구성하고, 당회장은 당회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 ② 당회운영위원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개최하며, 그 외 당회장, 당회서기 또는 당회운영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
- ③ 당회운영위원회의 사무는 아래와 같다.

- 1. 당회 사무에 속하는 사항의 사전 심의
- 2. 교회의 전반적인 사무에 관한 심의·의결
- 3. 당회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분과위원회가 상정한 안건에 관한 심의·의결
- 4. 장로, 권사, 안수집사, 명예장로, 명예권사 임직 후보자 추천
- 5. 기타 당회가 위임한 사항

- ④ 당회운영위원 중 장로 운영위원의 선출 및 임기에 관한 사항은 당회가 별도로 정한다.
- 제12조 (당회분과위원회)
- ① 당회운영위원회는 본 교회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고, 분과위원회의 명칭, 역할, 구성방법은 당회운영위원회가 정한다.
- ② 당회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당회장이 추천하여 당회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는다.
- ③ 당회분과위원회는 당회운영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에 관하여 조사·심의·실행하고, 그 결과를 당회운영위원회에 보고하며 관련 안건을 상정한다.

- 제13조 (직분의 종류)
- 본 교회에 목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 전도사를 둔다.

- 제14조 (목사)
- ① 목사(전임 전도사 포함, 이하 같다)는 설교, 교육, 심방, 성례집전 등의 목회활동에 종사한다.
- ② 담임목사는 당회장으로서 본 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대외적으로 본 교회를 대표한다.
- ③ 담임목사는 교회가 정한 절차에 따라 부목사 중에서 수석부목사와 담임목사를 임명하여 국내 캠퍼스교회와 해외 비전교회의 목회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 ④ 목사의 임기, 정년, 청빙 등에 관한 사항은 당회가 별도로 정한다.
- 제15조 (장로)
- ① 장로는 교회의 택함을 받고, 교회가 위임한 사역 및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을 담당하며, 치리회원이 되어 목사와 협력하여 행정과 권징을 관장한다.
- ② 장로는 본 교회에 등록된 만 40세 이상의 세례교인으로 서 노회 및 교회가 정한 훈련과정을 마친 자 중에서 공동의회 출석교인 2/3 이상의 찬성을 얻은 자로 한다.
- ③ 당회운영위원회는 교인 중에서 복음전도와 선교, 교회를 위하여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를 명예장로 후보로 추천할 수 있다.
- ④ 은퇴한 장로와 명예장로 및 협동장로는 당회와 제직회의 언권회원이 된다.
- ⑤ 장로의 종류, 호칭, 역할 등에 관한 사항은 당회가 별도로 정한다.
- 제16조 (권사)
- ① 권사는 교회의 택함을 받고, 제직회의 회원이 되며, 교역자를 도와 궁핍하거나 환한 당한 교우를 심방하고 위로하며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을 담당한다.
- ② 권사는 본 교회에 등록된 만 50세 이상의 여성 세례교인으로서 교회가 정한 훈련과정을 마친 자 중에서 공동의회 출석교인 2/3 이상의 찬성을 얻은 자로 한다.
- ③ 당회운영위원회는 여성 교인 중에서 복음전도와 선교, 교회를 위하여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를 명예권사 후보로 추천할 수 있다.
- 제17조 (안수집사)
- ① 안수집사는 교회의 택함을 받고 제직회의 회원이 되며,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고, 헌금을 수납하며 구제에 관한 일을 담당한다.
- ② 안수집사는 본 교회에 등록된 만 35세 이상의 남녀 세례교인으로서 교회가 정한 훈련과정을 마친 자 중에서 공동의회 출석교인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자로 한다.
- 제18조 (장로, 권사, 안수집사의 임직 등)
- ① 본 교회의 장로(명예장로, 협동장로 포함), 권사(명예권사 포함), 안수집사의 자격, 선발절차와 임직에 관한 사항은 당회가 별도로 정한다.
- ② 장로, 권사, 안수집사의 정년은 만 70세가 되는 해의 연말이고, 정년에 이르기 전에 건강이나 기타 사유로 본인이 사임을 희망하는 경우 당회의 승인을 받아 그 직을 면할 수 있다.
- 제19조 (전도사)
- ① 목사의 목회 활동을 돕기 위해 전도사를 둘 수 있다.
- ② 전도사의 임기, 정년 등에 관한 사항은 당회가 별도로 정한다.

제14조 (목사)

- ① 목사(전임 전도사 포함, 이하 같다)는 설교, 교육, 심방, 성례집전 등의 목회활동에 종사한다.
- ② 담임목사는 당회장으로서 본 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대외적으로 본 교회를 대표한다.
- ③ 담임목사는 교회가 정한 절차에 따라 부목사 중에서 수석부목사와 담임목사를 임명하여 국내 캠퍼스교회와 해외 비전교회의 목회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 ④ 목사의 임기, 정년, 청빙 등에 관한 사항은 당회가 별도로 정한다.

제15조 (장로)

- ① 장로는 교회의 택함을 받고, 교회가 위임한 사역 및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을 담당하며, 치리회원이 되어 목사와 협력하여 행정과 권징을 관장한다.
- ② 장로는 본 교회에 등록된 만 40세 이상의 세례교인으로 서 노회 및 교회가 정한 훈련과정을 마친 자 중에서 공동의회 출석교인 2/3 이상의 찬성을 얻은 자로 한다.
- ③ 당회운영위원회는 교인 중에서 복음전도와 선교, 교회를 위하여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를 명예장로 후보로 추천할 수 있다.
- ④ 은퇴한 장로와 명예장로 및 협동장로는 당회와 제직회의 언권회원이 된다.
- ⑤ 장로의 종류, 호칭, 역할 등에 관한 사항은 당회가 별도로 정한다.

제16조 (권사)

- ① 권사는 교회의 택함을 받고, 제직회의 회원이 되며, 교역자를 도와 궁핍하거나 환한 당한 교우를 심방하고 위로하며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을 담당한다.
- ② 권사는 본 교회에 등록된 만 50세 이상의 여성 세례교인으로서 교회가 정한 훈련과정을 마친 자 중에서 공동의회 출석교인 2/3 이상의 찬성을 얻은 자로 한다.
- ③ 당회운영위원회는 여성 교인 중에서 복음전도와 선교, 교회를 위하여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를 명예권사 후보로 추천할 수 있다.

제17조 (안수집사)

- ① 안수집사는 교회의 택함을 받고 제직회의 회원이 되며,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고, 헌금을 수납하며 구제에 관한 일을 담당한다.
- ② 안수집사는 본 교회에 등록된 만 35세 이상의 남녀 세례교인으로서 교회가 정한 훈련과정을 마친 자 중에서 공동의회 출석교인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자로 한다.

제18조 (장로, 권사, 안수집사의 임직 등)

- ① 본 교회의 장로(명예장로, 협동장로 포함), 권사(명예권사 포함), 안수집사의 자격, 선발절차와 임직에 관한 사항은 당회가 별도로 정한다.
- ② 장로, 권사, 안수집사의 정년은 만 70세가 되는 해의 연말이고, 정년에 이르기 전에 건강이나 기타 사유로 본인이 사임을 희망하는 경우 당회의 승인을 받아 그 직을 면할 수 있다.

제19조 (전도사)

- ① 목사의 목회 활동을 돕기 위해 전도사를 둘 수 있다.
- ② 전도사의 임기, 정년 등에 관한 사항은 당회가 별도로 정한다.

제5장 조직

제20조 (캠퍼스교회)

- ① 본 교회는 국내에 캠퍼스교회를 두고, 캠퍼스교회는 본 교회의 목적과 비전에 따라 목회와 사역을 담당한다.

② 캠퍼스교회에 담당목사를 둔다.

③ 캠퍼스교회 목사(전도사 포함, 이하 같다)의 인사와 재정, 장로·권사·안수집사의 임직은 본 교회가 통합하여 관리한다.

④ 캠퍼스교회에 캠퍼스교회 운영위원회를 둔다. 캠퍼스교회 운영위원회는 당회 또는 당회운영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을 수행한다.

⑤ 캠퍼스교회의 설치와 폐지는 당회의 결의에 의하고, 캠퍼스교회 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방법은 당회운영위원회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21조 (비전교회)

① 본 교회는 해외에 비전교회를 두고, 비전교회는 본 교회의 목적과 비전에 따라 목회와 사역을 담당한다.

② 비전교회에 담당목사를 둔다.

③ 비전교회는 교인총회를 두고, 비전교회 교인은 그 회원이 된다.

④ 비전교회 목사의 인사와 장로 임직은 본 교회가 통합하여 관리하고, 재정과 권사·안수집사 임직은 독자적으로 관리한다.

⑤ 비전교회의 설치와 폐지, 분리는 당회의 결의에 의한다.

⑥ 비전교회 운영에 관한 규정은 당회운영위원회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22조 (책임목회제)

① 제20조 및 제21조의 교회는 본 교회의 부목사 또는 해당 교회에서 임용한 부목사를 담임목사로 청빙하여 독립하여 운영하되, 본 교회와 목적과 비전을 공유하면서 긴밀한 유대 관계를 유지하는 책임목회제를 시행할 수 있다.

② 책임목회제를 시행할 교회와 그 운영방법은 당회가 정한다.

제23조 (Acts29 미션공동체: AMA)

① 본 교회는 제20조 내지 제22조의 교회, 그 외 본 교회와 목적과 비전을 같이 하는 다른 교회와 연합하여 AMA(Acts29 Mission Alliance)를 조직하고, 그 산하에 각 지역별로 OMA(Onnuri Mission Alliance)를 둘 수 있다.

② AMA에는 최고이사결정기관으로서 이사회를 두고 이사회 의장은 본 교회 담임목사가 담당하며, AMA의 조직, 구성 방법에 관한 사항은 당회의 결의로 정할 수 있다.

③ 책임목회제를 시행하는 비전교회는 원칙적으로 AMA (또는 OMA, 이하 같다) 소속으로 하고, 당회결의에 의하여 특정교회를 AMA에 소속하게 하거나 AMA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④ 본 교회는 AMA 소속 교회와 상호교류 및 연대를 통해 공동의 목적과 비전을 달성하는데 힘쓰고, 이를 위해 AMA 또는 그 소속교회에게 적절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24조 (협력관계)

제20조 내지 2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른 교회나 기도처 등이 본 교회와 목적과 비전을 같이 하는 경우에는 본 교회는 당회결의로써 그 교회 등과 사이에 일정한 협력 관계를 맺을 수 있다.

제25조 (공동체)

① 본 교회(캠퍼스교회 포함, 이하 같다)는 공동체를 둘 수 있고, 공동체에는 다락방과 순을 둘 수 있다.

② 공동체에 담당목사를 둔다.

③ 공동체에 운영위원회를 둔다. 공동체 운영위원회는 당회 또는 당회운영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을 수행한다.

④ 공동체의 구성, 분리, 통합 등에 관한 사항은 당회운영위원회의 결의에 의하고, 공동체 운영위원회의 구성, 역할, 운영 방법 등은 당회운영위원회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26조 (사역본부)

① 본 교회의 사역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당회운영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사역본부(사역부서 포함, 이하 같다)를 둘 수 있다.

② 사역본부에 본부장 또는 책임자를 둔다.

③ 사역본부에 운영위원회를 둔다. 사역본부 운영위원회의 구성, 역할, 운영방법 등은 당회운영위원회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6장 법인 및 기관·단체

제27조 (법인·기관·단체)

① 다음은 본 교회 산하에 있거나 본 교회와 협력관계에 있는 법인, 기관, 단체들(이하 “유관기관”이라고 칭한다)이다.

1. 재단법인 온누리선교재단
2. 사회복지법인 온누리복지재단
3. CGNTV
4. 두란노해외선교회
5. 사단법인 더멋진세상

② 본 교회는 교회의 목적과 비전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1항의 유관기관에 재산을 출연하거나 그 운영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

③ 본 교회는 필요한 경우 당회의 승인을 받아 유관기관을 추가로 설립하거나 폐지할 수 있다.

제28조 (정관 또는 운영규정의 제정)

제27조의 유관기관은 정관 또는 운영규정을 제정한 후 당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이에 따라 운영·관리하여야 한다.

제29조 (주요사항의 승인 및 인준)

① 제27조의 유관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회운영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당회의 승인 또는 인준을 받아야 한다.

1. 대표자의 임명 또는 해임
2. 이사, 위원 및 감사 등 임원의 선임 또는 해임
3. 부동산의 취득, 처분, 담보제공 등 소유재산의 중요한 변동을 가져오는 행위
4. 당회운영위원회가 요청한 사항
5. 기타 중요한 사항

② 제1항이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당회가 그 행위의 취소 또는 철회를 요구할 수 있고, 해당 유관기관의 대표자는 이를 취소 또는 철회하여야 한다.

제7장 재정 및 감사

제30조 (재정운영의 기본 원칙)

① 본 교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그 해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본 교회의 재정운용은 수입 범위 안에서 지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모든 수입과 지출은 그 해의 세입·세출 예산에 포함되어 편성한다.

③ 본 교회의 모든 수입과 지출은 일반 회계기준에 따라 처리하고, 지출에 관하여는 감사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31조 (예산·결산)

① 본 교회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예산은 당회와 제직회의 의결을 거쳐 해마다 직전 연도 12월 중에 공동의회의 의결을 받아 집행한다.

② 제1항에서 정한 집행예산의 결산은 이듬해 2월 내에 당회와 제직회의의 의결을 거쳐 공동의회의 의결을 받아 확정한다.

제32조 (재정위원회)

① 본 교회는 재정의 적정한 집행과 관리를 위하여 재정위원회를 둔다.

② 재정위원회는 본 교회의 예산편성, 집행, 결산 업무를 관장하고, 업무수행을 위한 전담부서를 둘 수 있다.

③ 재정위원장은 당회장이 추천하고 당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재정위원은 당회장, 재정위원장 또는 당회운영위원이 추천하고 당회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재정위원회는 매년 다음해 예산안을 심의·편성하여 당회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회에 제출하고, 당회운영위원회 및 당회에 직전 연도 결산보고를 하여야 한다.

⑥ 재정위원회 산하에 예산편성 및 결산을 위하여 예결위원회를 둔다.

⑦ 재정위원회와 예결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회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33조 (감사 및 감사위원회)

① 본 교회는 교회 운영 전반에 관한 감사를 위하여 감사위원회를 둔다.

② 감사는 정기감사와 특별감사로 구분한다. 정기감사는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고, 특별감사는 당회장 또는 당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 실시한다.

③ 감사위원장은 당회운영위원회가 추천하고 당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감사위원은 감사위원장 또는 당회운영위원이 추천하고 당회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감사위원회는 감사결과를 당회운영위원회 및 당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⑥ 감사위원은 감사를 위하여 관계자들에게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감사위원으로부터 자료제공 요청을 받은 사람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⑦ 감사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회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34조 (재산의 취득과 관리)

① 교회가 취득한 재산은 교회의 소유로 하되, 교회 재산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보존, 관리를 위하여 재단법인 온누리선교재단 명의로 재산을 취득, 보유할 수 있다.

② 본 교회 재산의 취득, 사용, 수익, 처분 등의 방법과 절차는 당회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재산의 관리에 재정위원회가 주관하되, 온누리선교재단 또는 재정전담부서에 위임할 수 있다.

제8장 기타

제35조 (회의 성립과 의결정족수)

이 정관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본 교회의 각종 회의는 구성원 과반 수의 참석으로 성립되고, 참석 구성원의 다수결로 의결한다.

제36조 (정관 개정)

이 정관의 개정은 당회에서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발의하고, 제직회에서 출석회원 2/3 이상의 찬성을 거쳐 공동의회에서 출석회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할 수 있다.

제37조 (시행규칙)

당회는 이 정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시행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제38조 (총회 헌법과의 관계)

권징 및 그 외 본 정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총회 헌법 및 관련 규정에 따른다.

부칙(2018. . .)

제1조 (효력발생)

이 정관은 공동의회가 의결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제2조 (교회 규정의 효력)

이 정관의 효력 발생 당시 본 교회가 제정·시행하고 있는 제반 규정과 법인 및 기관의 정관이나 운영규정은 이 정관의 내용에 반하지 않는 한 이 정관에 의하여 승인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 (기존 교회조직 및 위원회)

이 정관의 효력 발생 당시 이미 구성되어 있는 본 교회의 기존 조직, 위원회(당회 운영위원회, 당회 분과위원회 포함), 사역본부 등은 이 정관에 반하지 않는 한 이 정관에 의하여 구성된 것으로 본다.

제4조 (종전 정관의 효력)

이 개정 정관의 효력발생과 동시에 본 교회의 종전 정관은 효력을 상실한다.

(끝)

14 온누리신론

게시판

2018년 12월 23일(주일) | 제1226호

서빙고 O2. 793. 9686 주일예배 1부 오전 6:50 분당 2부 오전 9:00 분당 3부 오전 11:30 분당 4부 오후 1:50 분당 5부 (십자가의 길) 오후 4시 비전을 6부 (열린새신자예배) 오후 7시 분당 7부 9시에 뜨는 별 오후 9시 분당 1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5:20 분당 2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6:30 분당 월요 어노인팅집회 매주 월요일 오후 7:00 비전을 화요Holy Impact 집회 매주 화요일 오후 7:30 분당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요일 오전 10:30 분당 수요목양예배 매주 수요일 오후 7:30 분당 목요경배와찬양 매주 목요일 오후 6:30 분당 목요선교집회 매주 목요일 오후 7:30 비전을 금요회복예배 매주 금요일 오후 7:20 분당 금요철야예배 매주 금요일 오후 9:50 분당 한마음정신회복예배 담당: 권용갑 목사 매 주일 오전 11:20 선교관 101호 문의: 02-3215-3532 S브릿지 예배 내용: 만33~44세 미혼 청년예배 주일 오후 1:30 두란노홀 문의: 신상국 부대표(010-7933-5422) 장애인 공동체 누리사랑부예배 매 주일 오전 11:00 선교관 콘서트를 문의: 박범식 팀장(010-5225-1519) 야베스맘예배(사별자모임) 매주 화요일 오후 6:00~8:30 선교관 403호 문의: 정종희 팀장(010-9391-7997) 문화 미디어 중보기도예배 매주 화요일 오후 8:00~9:30 콘서트를 문의: 전도본부(02-3215-3214) 사랑부예배 대상: 발달장애청소년 시간: 매주일 오전 9:00 선교관 콘서트를 문의: 김종영 목사(010-2890-1707) 예수사랑부예배(발달장애 청장년공동체) 매 주일 오전 11:20 서빙고 한동을 문의: 김진현 팀장(010-8567-1808) 일본어예배 매 주일 오후 2:00 선교관 한동을 문의: 김상호 팀장(010-9949-5631) 일본어예배 수요기도회 매주 수요일 오후 7:30 선교관 302호 영어예배 매 주일 오후 4:00 경찬홀 문의: 02-3215-3685 중국어예배 매 주일 13:30 경찬홀 문의: 김성철 집사(010-3660-7135) 온누리M미션 외국어예배 서빙고(02-3215-3730) 몽골어 주일 14:30 선교관 401호 러시아어 주일 14:00 선교관 301호 네덜어 주일 14:30 선교관 402호/매월 첫주 군포 하나로 센터 아랍어 주일 14:00 본관 B102/매월 첫주 선교관 402호 페르시아어 주일 14:30 선교관 208호 안산M센터(031-491-9650) 몽골어 주일 10:30 Joy 201 / 러시아어 주일 10:00 Onnuri Hall / 네덜어 주일 10:30 Peace 303 / 캄보디아어 주일 10:30 Peace 302 / 미얀마어 주일 10:30 Joy 202 / 필리핀, 파갈루어 주일 10:30 Peace 301 / 태국어 주일 14:00 Peace 303 / 스리랑카어 주일 11:30 Peace 304 / 베트남어 주일 예배 14:00 Peace 301 / 중국어 청년 주일 14:00 Peace 304 다문화 꿈방 주일 11:00 Star tree / 다문화 파워웨이브 주일 11:00 2F Library / 다문화 예교 주일 10:30 B105 / 다문화 대형 주일 14:00 4층 Manna hall / 인도네시아어 주일 14:00 Peace 305 / 우즈베크스탄어 주일 14:00 1F StarTree / 파키스탄어 주일 13:00 Peace 305 / 열방예배 9:00, 11:00 4F Manna hall 김포M센터(010-7762-7718) 캄보디아어 주일 11:00 양곡 플라자 빌딩 703호 / 차세대 주일 11:00 양곡 플라자 빌딩 705호 화성M센터(070-8671-8091) 열방예배 주일 9:00 301호 / 네덜어 주일 9:00 302호 평택M센터(031-651-1702) 몽골어 주일 11:30 평택 Love Hall DRS 이혼자 정기예배 일시: 매주 토 15:30~19:00 신관401호 문의: 김재영 팀장(010-2539-5665), 나지원 총무(010-3489-2080) 이스라엘 중보기도 모임 서빙고: 매주 토 오전 7:30 시온홀 양재: 매주 토 오전 8:00 JDS홀 문의: 02-792-7075 대학청년부를 위한 어머니 기도모임 매주 금요일 10:00~12:30 본관 B102호 문의: 추명희 집사(010-8000-4792) 군 선교와 군인대 자녀를 위한 기도모임 시간: 매주 화요일 오후 7:30 장소: 서빙고 선교관 101호 문의: 02-3215-3214 마리아행진 중보기도모임 나라와 민족위해 기도하는 기도부흥운동 일시: 매주 수요일 오후 1:00~2:30 장소: 신관 3층 드림홀 문의: 여성사역(02-3215-3227) 북한중보기도모임 안내 일시: 매주 월요일 오후 7시 30분~9시 장소: 선교관 403호 문의: 송용주 형제(010-8591-8236) 병원사역예배/환우기도모임 시간: 매주 수요일 오후 1:00~2:30 장소: 서빙고 신관 301호 대상: 봉사자 및 환우 중보 요청자 문의: 이재신 팀장(010-4753-3150) Acts29비전빌리지 열방예배 매주 월~금 오전 11시30분~12시 30분 서툼은행(031-331-8182) 서빙고출발 09:30, 양재출발 10:00 비전빌리지(양지)출발 15:00 한터 공동체 예배 탈북민사역에 관심있는 분들을 위한 예배 시간: 매주 오전 10시 장소: 한누리 본부(지하철 9호선 가양역 6번출구, 투썸플레이스 건물 6층) TIM MK 중보기도 모임 시간: 매월 둘째 주 월요일 오전 10시 30분 장소: 서빙고 온누리교회 선교관 302호 문의: 김명지 간사(010-5017-3146) 차세대 목요어머니기도회 시간: 매주 목요일 오전 10:30 장소: 신관 4층 누리를 아프가니스탄 중보 기도모임 시간: 매주 목요일 오전 10:30 ~ 12:30 장소: 선교관 1층 미션홀 문의: 이신숙 집사 010-3212-2664 온누리가족 나무동산(공원요역) 잔여 기 계약자 모집 자격조건: 온누리교회 등록교인만 계약이 가능(계약자의 가족까지 안함) 동산위치: (재)충효공원(강원도 원주시 문막읍 공촌리 산 152-2) 사용안내: 매장방식의 납골과, 봉분에 의한 매장 잔여수량(가): 80기 문의: 02-3215-3176 온누리 남성성교합창단 단원모집 시간: 매주 화 오후 7시 20분 장소: 서빙고 온누리교회 한동을 준비: 찬송가 1곡(자유곡) 문의: 신준환 성가사(010-5304-7039) 홈페이지: http://www.ommckr QT 베이직 세미나 일시: 1월 7일(월) 10:00~16:00 장소: 서빙고 온누리교회 준비: <생명의 삶>1월호, 필기구, 성경책 회비: 4만 원 (중식비 포함, 12/31(월)까지 홈페이지 등록 및 입금 시 3만 원) 강사: 김종민 목사, 박성민 목사, 신동식 목사 내용: 12강 QT란 무엇인가? 2강 QT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3강 QT 나눔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대상: QT를 배우고자 하는 모든 분 접수: www.duranno.com/seminar 문의: 02-2078-3252 *게시판 광고마감 목요일 오후 4시 양재 O2. 570. 7430 주일예배(사랑홀) 1부 오전 6:50 2부 오전 9:00 3부(열린예배) 11:30 4부 오후 1:50 5부(대학청년부 여호수아) 오후 4:00 6부(열린새신자예배) 오후 7:00 7부 9시에 뜨는별 오후 9:00 1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5:20 사랑홀 2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6:30 기쁨홀 새신자를 위한 열린예배 주일 오후 7:00 사랑홀 화요성령집회 매주 화 오후 7:30 기쁨홀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요일 오전 10:30 사랑홀 수요예배 일시: 매주 수요일 오후 7:30 사랑홀 금요철야예배 매주 금 오후 11:00 사랑홀 브릿지33+ 예배 33세~44세 싱글 남녀를 위한 공동체 매주 주일 오후 2:50, 하용조 기념홀 문의: 이수준 팀장(010-6398-6022) 한마음 정신 회복 예배 안내 매주 주일 오전 11:20 트리니티 강의동 304호 Point5 예배 주일 오전 11:30 하용조 기념홀 차세대예배(Point5 영어와 한국어로 드리는 예배) Jesus Toddler 24~48개월(주기철재폴실) Jesus Rock 5세~초등1(총성홀 9:00) Jesus Crew 초등2~초등6(JDS홀 9:00) Jesus Vine 중등1~중등3(비전홀A 9:00) 도곡교육관 주일 성인예배 도곡1관 사랑홀(숙명여고 대강당) 1부 오전 9시, 2부 오전 11시 30분 도곡 차세대 9:00 예배 영아부: 도곡1관 꿈터(B동 1층) 유치부: 도곡1관 꿈아이홀(B동 1층) 유년부: 도곡1관 총성홀(B동 2층) 초등부: 도곡1관 화평홀(B동 2층) 중등부: 도곡1관 온유홀(A동 2층) 고등부: 도곡1관 기쁨홀(A동 3층) 도곡 차세대 11:30 예배 예교: 도곡1관 꿈터(B동 1층) 꿈땅: 도곡1관 총성홀(B동 2층) 도곡교육관 주일 11:00 예배(영어) Adult Service: 도곡2관(중대부고 강당) 도곡교육관 11:00 영어 차세대예배 Hope Zone(Newborn~Age4) : 도곡2관 (중대부고 5층) Love Zone(Age5~Grades2) : 도곡2관 (중대부고 5층) Joy Zone(Grades3~6) : 도곡2관 (중대부고 5층) OEM Youth(Grade7~12) : 도곡1관 기쁨홀(A동 3층) 도곡교육관 주일 오후 2:00 예배(청년부) 갈렘 청년부 예배: 도곡2관(중대부고5층) 사랑부 예배(장애 학생) 주일 오전 9:00 비전홀B 문의: 이루주 전도사(010-9150-5190) 프랑스어 예배 설교: Gerard Tynevez 일시: 주일 오후 2:00 양재 강의동 304호 문의: 010-5467-9878, *통역 지원 하나공동체 예배 탈북민과 탈북민 사역에 관심 있는 분들을 위한 공동체 매주일 14:00 양재 JDS홀 마리아행진 주중기도모임 대상: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기 원하는 모든 여성 일시: 매주 수요일 13시~14시 30분 장소: 양재 화평홀 문의: 02-570-7277 병원사역예배와 기도모임 장소: 양재 비전홀A 시간: 매주 수요일 10:30~14:00 문의: 조현영 팀장(010-3328-6366) *환우중보심방전도 요청 받음 양재 살림기도회 일정 안내 대상: 나라와 통일과 평화를 위해 기도하기 원하는 성도 매주 월 오후 7시 30분 양재 JDS홀 문의: 김정용 총무(010-5339-4522) 대청어머니기도모임 일시: 매주 화 10~12시 반 경찬홀 문의: 김은지(010-3285-1726) 차세대 목요어머니기도회 시간: 매주 목 오전 10:30 장소: 본관 B3층 JDS홀 스페인어예배 매주일 14:00 도곡교육관 온유홀 두란노해외선교회(TIM) 직원 모집 업무: 선교사 숙소 관리(상도동 소재) 자격: 선교적 마인드를 갖고 있는 50세 이상 남자 (건물 관리 경력 우대) 급여: 4대 보험 보장 지원 및 문의: 홍범식 장로 (010-5004-3191) 은혜샘물유치원초등학교, 더샘물학교 신원인생 추가모집 모집: 은혜샘물유치원초등학교(유치원 5~7세, 초등 1~5학년) 더샘물학교(초등 1~3학년, 중 1) 문의: 더샘물(031-283-0252) 더샘물(031-8055-8339) www.smca.or.kr

부 천 O32. 322. 9686 주일예배 1부 오전 7:00/2부 오전 9:00/3부 오전 11:30/4부 오후 2:00/5부 오후 4:00(대청예배)/6부 오후 7:00(부흥예배) 새벽기도 월~토 오전 5:20 분당 차세대 예배 영아부~오전 9:00, 11:30 / 유치부~오전 9:00, 11:30, 14:00 유년부~오전 9:00, 11:30 / 초등1부~오전 9:00 초등2부~오전 11:30 / 유초등부~오후 2:00 중등부~오전 9:00, 11:30 / 고등부~오전 9:00, 11:30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 오전 10:30 수요저녁예배 매주 오후 7:30 한사랑예배(탈북민) 매주 오후 2:00 3층 꿈아이홀 사랑부예배(장애인) 매주 오전 11:30 3층 꿈아이홀 어린이영어예배(JEM) 오전 9:00 기쁨홀 중국어예배 매주 오후 2:00 두란노홀 수원 O31.895.6500 주일예배 1부 오전 7:00 / 2부 오전 9:00 3부 오전 11:30 / 4부 오후 2:00 / 5부 오후 7:00 대학청년(주일) 대학부 오후 2시(경찬홀) / 청년부 오후 3시(민음홀) 새벽예배 월~토 오전 5:20(분당)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 오전 10:30 수요온누리워십 매주 수 오후 7:40 차세대 주일예배 영아부 오전 9시, 11:30 드림홀 유아부 오전 9시, 11:30 조이홀 유치부 오전 9:00, 11:30 소망홀 유년부 오전 9:00(초1~3), 11:30(초1~2) 사랑홀 초등부 오전 9:00(초4~6), 11:30(초3~4) 경찬홀 소년부 오전 11:30(초5~6) 믿음홀 중등부 오전 9시 비전홀 / 고등부 오전 9시 믿음홀 차세대 영어예배 오전 11:30 비전홀	대전 O42.825.3642 주일예배 1부 오전 9시 분당 / 2부 오전 11:30 분당 젊은예배 오후 2시 30분 분당 대학부 오후 2시 30분 누리홀 주중예배 새벽예배▶ 월~금 오전 5:20 분당 토요새벽기도회▶ 매주 토 오전 6:00 분당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 오전 10:00 분당 수요저녁예배▶ 매주 수 오후 7:30 분당 차세대주일예배 예교(36개월~7세) 오전 09:00 꿈땅(초1~초6) 오전 09:00 영아부 오전 11:30 유치부 오전 11:30 유년부 오전 11:30 소년부 오전 11:30 초등부 오전 11:30 중등부 오전 11:30 고등부 오전 9:00 남양주 O31.565.9686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분당 / 2부 오전 11:30 분당 3부 오후 2:00 분당 / 4부(청년) 오후 4:00 분당 [다문화] 주일 11:00 / 4층 온유홀 주중예배 힌디어 토요일 19:00 5층 믿음홀 / 네덜어 토요일 19:00 5층 소망홀 / 새벽예배(월~토) 오전 5:20 3층 분당 / 수요여성예배 오전 10:30 3층 분당 / 수요목양예배 오후 7:30 3층 분당 차세대예배 영아부 오전 11:30 2층 예꿈홀 유치부 오전 9:00 2층 예꿈홀 유년부 오전 9:00 2층 꿈땅홀 초등부 오전 11:30 2층 꿈땅홀 중등부 주일 오전 11:30 기쁨홀 고등부 주일 오전 9:00 기쁨홀
평택 O31.651.9680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분당 2부 오전 11:30 분당 3부 오후 2:00 분당(대학청년) 주중예배 및 모임 화요기도모임 화요일 오전 10:00 비전을 수요오전여성예배 수요일 오전 10:30 분당 수요여성예배 수 오후 7:30 분당 차세대예배 예수님의꿈아이 오전 11:30 본관2층 꿈이자라는땅 오전 9:00 본관2층 파워웨이브 오전 11:30 파워웨이브교육관 새벽기도회 월~토 오전 5:20 분당 외국어예배 몽골어 예배 11:30 평택M센터 Love Hall 인도네시아어예배 11:00 인도네시아 헬터 인천 O32.437.9686 ※예배장소 및 시간에 대한 문의는 목회지원실(032-437-9686)로 연락바랍니다. 주일예배장소 12월 성인/차세대/사랑부예배 12/29,25: 송도 연세대학교 국제캠퍼스(송도동 162-1) 12/16,23,30: 송도 컨벤시아(송도동 6-1) [중·고등부 예배] 제너섬 7층(송도동 179-1) [대학청년부·국제예배] 제너섬 7층(송도동 179-1) 주중예배 수요여성/수요저녁/새벽예배 제너섬 7층(송도동 179-1) 주일예배 성인예배 9시/11:25/오후2시 차세대예배 영아/유치/유년/초등/중등/사랑부 11:20 꿈땅1부/고등부 9:00 해브리카즈 오후2시 대학청년부예배 오후 2시 몽골어예배 오후 2시	강 동 O2.475.9686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분당 / 2부 오전 11:30 분당 3부(프라미스청년) 오후 2:00 분당 프라미스U대학부 오후 2:00 사랑홀 차세대예배(주일) 예수님의꿈아이(영아부) 오전 11:30 기쁨홀 예수님의꿈아이(유치부) 오전 11:30 두란노홀 꿈이자라는땅(유년부) 오전 11:30 드림홀 꿈이자라는땅(초등부) 오전 11:30 사랑홀 파워웨이브 오전 9:00 두란노홀 사랑부 오전 9:00 사랑홀 주중예배 새벽기도회(월~토) 오전 6:20 분당 수요오전예배 오전 10:30 분당 수요저녁예배 오후 7:30 분당 양 지 O31.331.8171 주일 성인예배 1부 예배 / 9:00 / 2층 김사무엘홀(분당) 2부 예배 / 11:00 / 2층 김사무엘홀(분당) 3부 두드림예배 / 14:00 / 지하1층 박모세를(대청) 주일 차세대예배 드림씨드(영아) / 11:00 / 2층 드림씨드홀(분당 영상 중계예배) 예수님의 꿈아이(유아) / 11:00 / 지하1층 무어홀 예수님의 꿈아이(유치) / 11:00 / 지하층 위더스홀 꿈이 자라는 땅(유년) / 11:00 / 2층 이베젤러홀 꿈이 자라는 땅(초등) / 11:00 / 2층 스크랜턴홀 파워웨이브(중·고등) / 11:00 / 지하1층 박모세를 주중예배 새벽예배(월~토) / 5:20 / 1층 시안홀

CGNTV



맞춤특강

나침반

네 번의 사랑으로 만난 세상에서 하나뿐인 가족
강내우, 이지민 집사 부부의 특별한 사랑법

<공개입양: 같이 가는 삶, 가치 있는 삶>

강사: 성악가 강내우

방송: 12월 24일 (월) 오전 8시

<공개입양: 스승과 엄마 사이>

강사: 이지민 집사

방송: 12월 31일 (월) 오전 8시



세상을 따뜻하게 채워나가는 크리스천의 삶

맞춤특강 나침반 / 나침반 **바이블** 과 함께하세요

나침반/나침반 바이블은 CGNTV 홈페이지 www.cgntv.net 를 통해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정기후원 [KEB하나은행 573-910002-67804] ARS 060-700-1660 문의 02-796-22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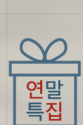
<성경읽기, 도와주세요!>

방송: 12월 26일 (수) 오전 8시

<삶으로 이어가는 말씀읽기>

방송: 12월 27일 (목) 오전 8시

바이블 전문가
장성운, 이재천, 이정규, 김형익 목사가 전하는
말씀과 동행하는 삶



나침반 **바이블**

BIBLE

